

팬데믹 상황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2천년전 오신 주님을 찬송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태복음 2장 6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12월 19일 (토) 제 1854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발행인 칼럼 : 성탄절 특집

그대에게도 임마누엘이신가?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그는 그렇게 떠나셨다. 홀로? 아니다. 지난 12월 13일 뉴저지 Franklin Memorial Park에서 은사(恩師)이신 고(故) 김인환 전(前) 총신대 총장님의 유골(遺骨) 하관예배가 있었다. 예배 가운데 첫 음을 집례하신 목사님이 다소 높게 잡긴 하셨으나 '하늘가는 밝은 길이' 찬송이 우렁차게 메모리얼 파크에 울려 퍼졌다. '하늘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렇다 은사님은 슬픈 일도 많이 보셨고 늘 고생이 많으셨다. 그래도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어려움을 안겨주는 자들을 품는 모습은 압권(壓卷)이었다. 자신도 육을 먹을지

언정 비난 받는 자들의 걸을 떠나지 않으셨다. 상한자와 약한 자와 함께하셨던 임마누엘 예수님의 모습을 은사님에게서 뵈 수 있었다. 지난 40년 가까이 한결 같으셨다. 그는 그렇게 안기셨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날 예배의 찬송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님' 성탄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 아니다. 그에게는 아니었다.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마약에 빠졌다가 계속 살 돈이 없어 아예 마약 딜러가 되어 끝내 감옥에도 갔다 온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였다. "God Is Bad. All the Time!" 자기 인생의 방해꾼. 항상 나쁜 것만 골라주는 하나님. 그러던 그가 만났다. 성탄의 예수님을. 그는 이제 알았다. 성탄의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임을. 그는 굳게 믿었다.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

을. 그는 어디서나 큰소리로 외치고 다닌다고 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얼마 전 다른 도시에서 흡리스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이다. 흡리스들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친 게으른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이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성탄절 임마누엘의 영성이다.

맨해튼의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화려하다. 2021년 성탄을 맞는 맨해튼은 팬데믹 이전보다 결코 못하지 않았다. 록펠러센터 앞의 대형 성탄 트리(tree), 건물마다 캐롤과 함께 펼쳐 보이는 형형색색의 성탄 관련 그림들이 눈을 휘둥거리게 한다. 성탄을 맞아 거리에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환호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유독 저 멀리 계신 분이 있으시다. 그분의 자리는 적어도 이 거리에는 없는 것 같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으라는 거니?" 물으시는 듯하다. 지난주 찬양대의 찬양가사가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맨해튼의 거리에서 들려져야 할 것 같다. '구세주

문밖에 계시는데 너는 왜 지체하나/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는 왜 모르는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문밖에서 기다리며 닫힌 문 열릴 때 기다리네/ 주님은 기다리리네' "성탄의 예수님께, 맨해튼아 문을 열라!"

요즘 사라진 풍경이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가정방문이 있었다. 팬데믹 이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여전히 목회자들의 가정방문은 있다. 그런데 그 집안에 학생과 부모가 있고 그 가정 안에 성도가 있음에도 문을 열어 잠고 선생님께 목회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서글픈 모습이었겠는가. 그러나 그 어떤 서글픔도 첫 성탄절만큼은 아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께 말했다. "빈방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향해 "빈방이 없어요"는 유행가처럼 성도들에게 불린다. 그럴 수 없다. "성탄의 예수님께, 성도들이 문을 열라!"

그대에게 2021년도의 성탄절이 다가왔다. 예수님을 맞이할 빈방은 있으신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과연 그대에게도 임마누엘이신가?

성탄 속시

눈물이 꽃씨 되는 밤



석정희(시인)

소리 없이 천장에서 내리는 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색 트리에 장식된 탄일종

아기 예수님 나심으로 찢겨
은혜의 눈물로 바뀌어
눈물방울 꽃씨로 꽃 피우시네

우주공간을 가득 채워
구주 아기 예수님 오신 날

그 꽃들 종소리 맞춰 춤추는 밤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 기리며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늘 채우세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반기세

이 기쁨 너와 나 누구나 함께하는
은 누리에 기쁨으로 즐기는 무리들

조그만 그림카드 앞에 두고 앉아
어두워져만 가는 혼탁한 세상

종소리 들리는 골목골목을 돌아
넓은 들판으로 열리는 길에 들어
눈 내리는 아침 찬송으로 이끄시네

나 몰라라 했던 인색한 마음
외마디 울음으로 무릎 꿇으면
별만큼이나 많은 잘못들

[필자 약력]
Skokie Creative Writer Association 영시 등단.
'장조문학' 시 등단, 대한민국문학대상 수상.
한국농촌문학 특별대상, 세계시인대회 고려문학 대상.
독도문화제 문학대상, 글로벌최강문학영인대상.
대한민국예술문학세계대상, 유관순 문학대상 외 다수
시집 "문 앞에서" "나 그리고 너" "강" "The River"(영문) "엄마 되어 엄마에게"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등이 있음.



시론
이동진 목사



2면
성탄절 특집설교
양수철 목사



3면



4면
성탄절 전통, 얼마나 알고 있나요?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kbcc.org | cjb@jkbcc.org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제27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운다

CALLED TO AWAKEN THE LAITY
2022년 4월 25일(월) - 4월 30일(토)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강사 오정현 목사 (서울사랑의교회 담임목사, 국제제자훈련원 원장)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미주 국제제자훈련원 대표이사)

등록비 조기등록할인(3월 15일까지): \$420
일반등록비: \$475

대상 담임목회자 및 칼세미나를 이미 수료한 담임목회자와 동역하는 부교역자
선교사 및 기관 단체장

등록 온라인: DMI.SARANG.COM
문의전화: 714.635.3000

주최 남가주사랑의교회
LDS(Laity Community Church) 국제제자훈련원



시론

교회의 라비스망(ravissement)은 어디로 갔는가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미국 색채연구소 팬톤(Pantone)이 지난 주에 '2022년 올해의 색상'(Announcing the Pantone color of the year 2022)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자료에 있던 색상중에서 선정하던 '올해의 색'을 처음으로 직접 만든 색으로 선정한 팬톤의 새로 창조된 색(color)의 이름은 베리페리(Veri Peri)이다.

Red나 blue 또는 Yellow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이 아니라 팬톤이 새롭게 만든 색인 베리페리색(色)은 평온한 느낌의 파란색에 에너지 넘치는 빨간색을 섞어 마치 보랏빛이 감도는 제비꽃 느낌을 주고 있다. 이 색상을 만들어 선정하는데 팬톤의 로리 프레스먼 부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이 파도를 돌파하기(break through)위해 우리는 용기 있는 창의성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색 선정에 대해 세계 언론들은 '전통적 blue의 항구성과 red가 주는 에너지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색이 보여주듯이 불안한 시대에 무언가 희망의 닦을 내려주기 위한 작업을 해주었다고 평가했다.

세상은 이처럼 흐름에 민감하고, 사람들에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각 분야의 연구소들은 물론이지만 이윤추구의 기업들도 시대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 물결을 어떻게 타야 할지, 어떤 물길을 만나고, 어떻게 위기를 넘어설 것인지 연구한다.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시도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자 한 이러한 시도에 세상은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가 가진 가장 귀중한 힘은 '복음'이라는 능력이다. 이 복음 안에는 우주의 창조로부터 지구 최후의 날까지 존재할 생명의 신비가 다 들어있으며, 과거의 역사 뿐 아니라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미래와 영원이라는 초월적 시간도 담겨져 있다.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진 곳이 바로 교회이다. 그런데 정말 교회에 그 복음이 있느냐는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며 '오늘의 교회'들은 또 이렇게 팬텀 두 번째 해를 넘어가고 있다.

색(color)의 표준을 만들고 분류하는 회사는 인류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새로운 색을 그야말로 '창조'해내는데, '오늘의 교회'는 기쁨과 환심을 내주는 인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아쉽게도 마침 오늘 한국뉴스에서는 '여성 교인과 불륜 즐거리 교회'자금 1600만원 빼돌린 60대 목사'라는 민망한 제목의 보도가 전파되고 있다.

프랑스 미학자 에티엔 수리오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라비스망(ravissement)'을 꼽았는데, '강탈하다, 약탈하다'라는 뜻의 프랑스어인 이 말은 '어떤 것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몰입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세상은 이 라비스망이 인류의 오늘을 만들어냈다고 스스로 높이 평가하면서 교회를 비롯하고 있는 것만 같다. 영광과 전능과 위엄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라는 단어에 완전몰입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서있는 것 같은 교회를 향해.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또 한 해가 넘어가는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의 라비스망 앞에서 교회의 라비스망은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 철저히 돌아보아야 한다.

팬텀의 두 번째 겨울이 넘어가고 있다. 색채연구소는 색을 창조(?)했다면서 베리페리색을 선보이고 있는데, 창조의 근원인 교회는 무엇을 세상에 내놓으며 위로한다고, 힘을 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창조'를 색채연구소에게 넘겨준 교회, 30배, 60배, 100배라는 성장의 비밀을 갖고 있음에도 무력하게 시들어 열매 없는 나무로 서있는 별거벗긴 교회의 솔직한 현주소. 여전히 성탄의 종은 또 울려오는데 인류에게 유일한 메시지인 신비한 사랑의 비밀을 갖고 있는 '그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광야를 지나는 약속의 백성들처럼 팬텀의 광야를 지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하는 복음의 능력'에 라비스망되어 새롭게 태어나 메시아탄생의 순전한 기쁨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크리스마스

CT, 라이프웨이 설문 조사 결과 해설 게재

대부분의 미국인은 크리스마스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을 축하하는 절기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왜 태어나고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고, 크리스천티튜데이(CT)는 최근 라이프웨이 리서치 설문 결과를 해석한다

(Most Americans, and Many Christians, Don't Believe the Son of God Existed Before the Manger: There's widespread agreement around Christmas as a historical event, but people are confused about the Trinity, per a recent survey).

라이프 리서치의 올해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4명 중 3명 가까이는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믿는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존재하셨다고 믿는 사람도 절반 정도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스코트 맥코넬(Scott McConnell) 이야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예수의 탄생을 역사적 사실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수님이 언제 사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다른 역사적 인물

2000년 이상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49%가 전반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소수(9%)가 동의하지 않는 반면, 18%는 확실하지 않다. 대부분의 미국인(80%)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에 한 분의 참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사야 9장에 있는 것과 같은 예언은 메시아가 기묘하신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평강의 왕이 되실 것임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참

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15%에 불과했다.

기독교인 중 한 달에 4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예수와 그의 탄생에 관한 성경의 진술을 가장 많이 믿는다. 98%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믿으며, 95%는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말한다. 그리고 63%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존재하셨다는 데 동의한다.

한편 미국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동기가 무엇인지 항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성경에서 예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 그러나 강림 이유 잘 몰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처럼 예수님만 평가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당신이 그를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평가해야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의 기원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믿지만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그가 출생 이전에 존재하셨다고 믿습니다.

올해 발표된 동 리서치의 이전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9명 이상(91%)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 축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역사적 사건이다. 10명 중 7명 이상(72%)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님이

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10%는 동의하지 않으며 10%는 확신하지 못한다.

보통 사람은 예수 탄생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5명 중 2명(41%)은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미국인 3명 중 1명(32%)이 동의하지 않으며 28%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맥코넬은 "2020년 신학 현황연구(The 2020 State of Theology Study)에 따르면 미국인의 72%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 안

호는 삼위일체를 반영하지만 일부 미국인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이미 존재한다고 이해해 지금 육신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비종교적인 사람들은 예수의 탄생과 정체성을 둘러싼 어떤 진술에도 동의할 가능성이 가장 낮지만, 일부 사람들은 조직화된 종교와의 명백한 단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는다. 거의 절반(48%)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3분의 1(33%)은 예수가 실제로 2000년 이상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말한다. 예수

님이 왜 오셨는지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일곱 가지 선택(네는 맞고 세 가지는 옳지 않음)이 주어졌을 때, 오직 한 가지 선택만이 소수의 다수를 얻었다.

미국인들은 틀린 답보다 정답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절반(51%)은 성경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러 왔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하는데, 이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인다. (11면으로 계속)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지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광학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 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진료: 안.내, 치아외과(임플란트), 구강외과, 틀니, 보철치과, 미용성형치과,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665-0009 |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886-4400 | E-mail: nychpress@gmail.com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2022 학년도 Zoom 겨울 특강

1978년에 설립되어 현재 1300여명의 목사 회원과 30개의 노회, 그리고 650여개의 지교회를 산하에 둔 미주 지역 최대의 한인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직영 신학교인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2 학년도 Zoom 겨울학기 특강**을 실시합니다.

모집과정

1. 학사 과정 (B.B.S.): 고졸자
2. 기독교교육학 석사 과정 (M.C.E): 대졸자
3. 목회학 석사 과정 (M.Div): 대졸자
4. 편입생 과정: 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편입하는 목회후보자
5. 편목 과정: 타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원하는 목회자

2022 학년도 봄학기

- 원서 마감일: 2022년 1월31일
- 개강수련회: 2022년 1월31일 오후7시
- 장소: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특전

1. 본교의 M.Div 과정을 졸업한 학생에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안수받을 자격이 주어짐.
2. 각종 장학금 (성적, 근로, 총회 및 이사 장학금)

2022 학년도 Zoom 겨울 특강

대상: 신학박사 (Th. D) 및 목회학박사 (D. Min) 과정

- 과목명: 성령과 목회
- 교수: 조대준 교수 (Ph. D)
- 일시: 2022년 1월 10-12 일, 17-19 일 (오후 7시~ 9:30 분)

조대준 교수
Talbot Theological Seminary - M.Div.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 Ph.D.

저서: 크리스천의 성화(2004년) 믿음의 세계가 보인다(2005년)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성(2006년) 성령론(2017년)

*문의처: 김동진 학감(626-675-8010)

박사 과정 안내

California BPPE 의 인가 (# 30693)와 California Education Code Section 94874(e)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박사 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1. 목회학박사 과정 (Doctor of Ministry)**
 - 입학 자격: 목회학석사 (M. Div) 학위를 소지한 목회자 및 선교사
 - 졸업 학점: 36 학점 (논문 12 학점 포함)
- 2. 신학박사 과정 (Doctor of Theology)**
 - 입학 자격: 목회학석사 (M. Div), 혹은 신학석사 (Th. M) 학위 소지자
 - 전공 분야: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중에서 택일(입학시)
 - 졸업 학점: 48학점 (논문 12 학점 포함)
 - 학비: 학점당 150 불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직영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 이정현박사 | 이사장: 양수철박사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310-749-0577, 626-675-8010

저명한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헬릿 카(Edward Hallett Carr)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의 책에서 "역사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결코 일방적인 과정일 수는 없다.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배우는 것은 또 한 현자에 비추어 과거를 배우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의 기능은 과거와 현재의 상호관계를 통해 양자를 더 깊게 이해시키려는 데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독일어로 Historie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감각 기관을 통해 경험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지식, 경험적 내용을 보고하거나 전달하고 설명하기 위해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History라고 하는데, 그 말은 His+Story 즉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선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운행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오는데, 완전히 새롭게 개혁신단

폐해 했습니다. 그런데 잊시리아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침공했는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라고 고백했던 하박국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원군(援軍)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의지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이집트 밖에 없었는데 이집트조차도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운명은 거대한 폭풍 앞에 있는 연약한 촛불과 같았습니다.

고통을 상징하고 빛(오르)은 하나님의 현현과 생명과 진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새 생명과 진리를 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3절).

예수님은 창성케 하시며 즐거움을 더해주시는 분이신데, 어느 정도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냐? 하면 ①추수하는 농부가 얻는 즐거움보다 더 승하게 하십니다. 농부들은 추수할 때에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입니. 이스라엘은 당시 미디안이란 나라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13만5천명의 군사를 물리치고 해방시켰습니다. 그 때의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라고 고백했는데(눅2:29), 그 말은 "지금 죽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 너무나 기쁜 일을 만나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시므온도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압제로부터, 죄의 구속으로부터,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 것입니다(눅2:10).

"하나님의 심판은 큰 연자맏들과 같다. 이 연자맏들은 돌지 않지만 매우 보드랍게 간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역사를 근시안적(近視眼的)으로 보지 않을 때에야 막막하고 답답하지 않 거시적(巨視的)으로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장중(掌中)에 의해서 모든 불의와 죄악은 파헤치고 정의와 진리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반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비롯됩니다. King James Version은 문장 첫머리에 나오는 불변사 '키'를 nevertheless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번역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 세상에는 흑암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

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는, 모사입니다. 모사(요에츠)는 '조언해주는 사람'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모사라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 직면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엘김보르)입니다. 보통 전능하다고 할 때에는 '사다아'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김보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을 보면 애처로운 청상과부인 룻을 도와주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해준 보아스를 가리켜 김보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통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 많으신 분이시며 결국에는 신앙까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는, 영혼하시는 아버지(아비아드)입니다. 근동에서 아버지란 말은 육신의 아버지도 나타내지만 보호자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보혜사)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임마누엘).



양수철 목사 (KAPC 전 총회장)

성/탄/절 /특/집/설/교

역사의 전환점이며, 미래의 유일한 희망인 성탄

이사야서 9장 1-7절



그런데 개혁되는 그 역사의 대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나다니엘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에 나오는 것처럼 훌륭한 정치가나 위대한 장군이나 사회운동가가 아니라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한 갓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구세주이신데 그 분이 탄생하신 날이 바로 즐거운 성탄절(Merry Christmas)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첫째로,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1-2절).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당시 세계 패권은 아시리아 제국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은 빼앗겼고, 고통과 흑암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종혼합정책까지 펴서 유일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까지 황

그런데 풍전등화(風前燈火)같이 멸망의 위기 앞에 있는 나라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한 아이가 태어나서 빛을 비취주겠다는 예언입니다. 이 아이는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탄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흑암에 비추시는 참 빛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도는 선명합니다. 즉, '어둠과 빛'을 대조하시는 것이지요(창1:2vs.1:3).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있게 된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흑암의 역사가 끝나고 광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흑암(호세크)은 죄와 무지와

풍년가도 있는 것이고, 농약대의 공연과 춤도 있는 것입니다. ②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탈취물을 나눌 때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연신킨 사병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가 밤중에 기습공격을 함으로써 롯을 구출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감사의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나 탈취물을 나눌 때보다 더 기쁜 것은 ③전쟁에서 이겨서 압제로부터 해방될 때입니다.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멩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무겁게 맨 멩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는 노예들을 잔인하게 다룰 때 사용하는 고문 도구들

셋째로, 전쟁을 평화로 바꾸었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겂옷이 불에 쏘 같이 살라지리니"(5절). 군인의 신발과 피 묻은 겂옷이 지푸라기처럼 불살라지겠다는 말씀은 전쟁이 아주 끝나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도구들도 다 사라집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칼로 삼을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드는 날이 오겠다는 말씀입니다. 극적인 반전이지요. 삼위일체(trinity)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교부 터툴리안은

해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찌하던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이루실까요? 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섯 가지 이름 속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첫째는, 기묘자(뎀레)입니다. 기묘자는 '놀라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

다섯째는, 평강의 왕(사르 샬롬)입니다. 팩스 로마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위대한 통치자도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의 숫자가 666이란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숫자(음가(音價), 게마트리아)는 888입니다. 6은 완전수인 7보다 하나가 모자란 숫자이고 8은 완전수에서 하나가 남은 숫자입니다. 8은 '새로운 시작'(부활을 포함해서)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도 남은 분이십니다.

정리하면 성탄은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인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므로 BC(紀元前)와 AD(紀元後)로 나뉘어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므로 흑암은 빛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전쟁은 평화로 바뀌는 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다섯 가지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쁜 성탄을 천사들과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2:14)라고 외치며 감격스럽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22년 6월 30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 (1) 구약주해: 신명기 6 : 1 - 9
- (2) 신약주해: 고린도후서 5 : 11 - 21
- (3) 논문제목: 펜대시대 개혁주의 예배를 중심으로 한 목회전략
- (4) 설교본문: 구약 - 시편 95 : 1 - 8, 신약 - 로마서 12 : 1 - 2 (중 택일)
-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징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손기성구약주해.pdf)

c.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2년 3월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c) 합격자 발표는 46회 총회기간(5월10일 - 13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2년 5월 3일(화) - 4일(수)
 장소: 다민족교회 (부총회장 홍규표 목사 사무)
 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International Church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제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2년 6월30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b)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 f) 명함판 사진 2장
- g) 고시료: \$100(USD) Pay to the order : WGPC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손기성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3-4일) 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당할 수 있음.
 - (3)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손기성 목사 (Rev. Kisung Son)
 주소: 4008 Lake Glen Rd, Fairfax, VA 22033 U.S.A.
 전화: 703-725-6468 / 이메일 663927@gmail.com

기타문의

- a) 고시부 부장: 송일용 목사 (Rev. John Y. Song) kappastor@gmail.com
- b) 고시부 서기: 손기성 목사 (Rev. Kisung Son) 663927@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오세훈 목사
서기: 장성철 목사
고시부부장: 송일용 목사
고시부서기: 손기성 목사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감동의 성탄 이브의 새벽 송

나는 21살의 나이에 미국에 와서 신학교를 다닐 때 루터란 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리는 작은 한인 교회의 전도사가 되어 섬기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었다. 장차 목회할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열심

히 공부만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교회에서 파트타임 전도사에게 주는 생활비를 가지고만 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교회에서 받았던 생활비가 400불이었는데 살고 있던 아파트의 렌트비가 135불

정도로 평균 시세보다 3배 정도가 컸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다. 아파트 렌트비가 그렇게 컸던 이유는 루터란 교회의 담임목사님 선처로 그 교회가 운영하는 노인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받은 400불에서 십일조를 드리고, 렌트비 내고, 자동차 보험료 내고, 가솔린비를 쓰고 나면 30불이 남았는데 그것으로 식생활을 해결해야 했다.

그때 당시 나는 24개가 들어 있는 한 박스에 3불99센트 하던 라면 두 박스를 샀고, 야채를 먹기 위하여 V8주스를 한 박스 샀다. 그리고 기름진 멕시코 음식인 부리토를 사서 조금씩 나눠서 먹는 것으로 식단을 짜고, 그리고 목사님이 심방을 데리고 가면 아주 많이 먹는다

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일 년 이상 하다 보니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었다. 먹고 싶은 것이 많은 나이에 먹을 것이 제한되어 있고 항상 배가 고팠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가 왔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잠 솔픈 마음이 들었다. 거기다가 그때 당시 나는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야기 상대도 없고 TV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이브 어느 날 밤 외로이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렸다. 잠에서 깨어 가만히 노랫소리를 들으니 성탄 찬송을 합창으로 부르는 소리였다. 그래서 나는 문을 열고

밖을 보았는데 루터란 교회의 미국인 찬양대원 10명 정도가 노인 아파트 정원 한가운데 있는 크리스마스트리 앞에서 촛불을 들고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그날 그들의 찬양을 들으며 한없는 위로를 받게 되었다.

나는 그날 밤 들었던 양을 지키던 목자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들에서 외롭게 양들을 지켜야 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찬송을 불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날의 천사들

의 메시지와 찬송은 더할 나위 없이 외로운 목자들에게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구세주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그 새벽 송을 들으며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금은 코로나를 통과하는 시기로서 우리가 새벽송은 부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성탄의 날에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과 함께 힘차게 찬송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 우리도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에게 천사가 했던 일을 하게 될 것을 믿는 바이다.

david2lord@hotmail.com

성탄절 전통, 얼마나 알고 있나요?

TGC, 알아두면 유익한 크리스마스 전통 8가지 소개

크리스마스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공유하는 경축일이자 다양하게 실천하는 관습이다. 크리스마스 전통에 대해 알아 두면 좋은 8가지를 정리했다(8 Things You Should Know About Christmas Traditions).

1. 크리스마스 트리

상록수를 집 안에 들여놓고 장식하는 전통은 1500년대 독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담과 하와의 축제’에서 공연된 연극에 등장하는 “낙원의 나무들”에서 이름을 따서 “낙원”이라고 불렀다. 에드윈(Edwin)과 제니퍼 우드럽 타이트(Jennifer Woodruff Tait)의 설명에 따르면 이 나무에는 성찬을 상징하는 동글고 얇은 과자들이 매달려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독일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쿠키 장식으로 발전했다.

2. 크리스마스 조명

전설에 따르면 독일의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집에 가져온 최초의 사람이자(사실이 아니다), 조명들로 장식한 최초의 사람이기도 하다(이것도 사실이 아닐 것이다). 루터와 관련 있다는 이야기는 이렇다. 어느 한겨울 밤 잠으로 걸어 가던 루터가 전나무와 그 주위에 빛나는 별의 아름다움에 압도됐다. 그 장엄한 광경을 가족들과 나누고 싶었던 루터는 나무를 집으로 가져와 별처럼 빛나는 긴 양초로 장식했다. 이로써 현대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

조명이 추가됐다는 것이다(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없다).

3. 지팡이 사랑

민간전승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지팡이 사랑은 1670년 독일에서 시작됐다. 쾰른 대성당의 한 성가대 지휘자가 예배 중에 아이들을 정숙하게 하려고 사탕을 나눠주었다. 그는 사랑 제조업자에게 아기 예수를 방문한 목자들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사랑 막대기 끝을 목자들의 지팡이처럼 구부려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인디애나의 사랑 제조업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죽음의 여러 상징을 통합해 지팡이 사랑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4. 크리스마스 카드

상업용 크리스마스 카드는 1843년 런던에서 시작됐다. 바빠서 편지 쓸 시간이 없었던 헨리 콜 경(Sir Henry Cole)은 예술가 친구에게 그림과 간단한 인사말이 있는 카드를 디자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술가 존 켈코트 호슬리(John Callcott Horsley)는 카드 1000장을 인쇄해 런던의 펠릭스 서머리 트레

저 하우스(Felix Summerly's Treasure House)에서 1실링에 판매했다.

미국인들은 줄곧 영국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수입해오다가 1875년에 “미국 크리스마스 카드의 아버지” 루이스 프랑(Louis Prang)이라는 독일인 이민자가 미국에서 최초의 상업용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작했다.

5. 크리스마스 양말 주머니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습니까?”로 시작하는 유명한 시 “성 니콜라스의 방문”(A Visit from St. Nicholas, 1823)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언급은 없고 양말 주머니가 나온다. 이것은 1800년대 내내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양말 주머니가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1883년 12월에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에서는 “수년간 양말 주머니가 크리스마스 너무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양말 주머니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부적절하고 불충분하게 경축되는 것처럼 보인다”

고 말했다. 양말 주머니와는 대조적으로 “뿌리도 없고 생명도 없는 시체처럼 보이는 독일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결코 그날을 기념할 가치가 없다”라고 논평했다.

양말 주머니를 걸어 놓는 전통이 실제로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와 관련한 민간 설화가 있다. 산타클로스가 어떤 가난한 가족이 있

다는 것.

6. 에그노그

에그노그(eggnog)는 우유, 크림, 설탕, 거품 낸 계란에 술(브랜드, 코냑, 럼주, 셰리주, 위스키)과 때로는 계피나 육두구 같은 향신료를 넣어 만든 음료다. 음식 역사가들은 이것이 중세 초기 영국의 포셋(posset,



지만 19세기에 크리스마스 노래 악보들이 출판되면서 일반 장르가 됐다.

예를 들어 1833년 영국인 변호사 윌리엄 샌디스(William Sandys)는 ‘크리스마스 캐럴: 고대와 현대를 출판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안식과 기쁨을 주시네(God Rest Ye Merry, Gentlemen)”와 “저 들 밖에 한 밤중에” “천사 찬송하기를” 같은 곡들이 실려 있었다.

또한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는 가정집을 방문해 노래하는 전통(wassailing, 한국교회의 “새벽송”)이 크리스마스에 채택돼 “캐롤링”(caroling)과 동의어가 됐다.

8. 대림절 달력

중세시대 대림절은 성탄절에 오신 그리스도의 초림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었다. 오늘날 대림절은 크리스마스까지 4주간 이어지는데, 대림절 달력 대부분이 12월 1일에 시작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24일의 기간이다. 대림절 달력의 전통은 19세기 중반에 독일 개신교인들이 때문에 분필로 표시하거나 촛불을 켜 두고 크리스마스까지 날짜를 세던 관습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대림절 달력을 최초로 인쇄한 사람은 1900년대 초 독일인 게랄드 랑(Gerald Lang)이다. 랑이 어려울 때 그의 어머니는 쿠키 24개를 상자 뚜껑에 매달아두고 대림절 기간 동안 하루에 하나씩 먹게 했다고 한다. 1908년에 랑은 이것을 자신의 대림절 달력 모델로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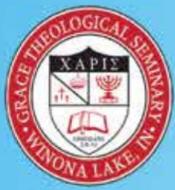
올바른 목표와 상황 점검하고 관계성 활용, 기준유지 좌절 말고 돌파 과정 인식 공유 새 변화 밑거름 활용

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가족은 자존심이 강해서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홀아비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아버지는 세 딸의 결혼지참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산타클로스는 굴뚝 밑으로 금화 세 닢을 던졌고, 벽난로에 말리려고 걸어둔 세 딸의 양말 속으로 떨어졌다(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산타클로스가 금으로 된 공 세 개를 주었고, 그래서 오렌지나 꿀을 넣어 주기도 한

우유가 섞인 뜨거운 맥주 같은 음료)에서 유래했다고 믿는다. 미국 식민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우유와 계란 덕분에 에그노그는 인기 있는 크리스마스 음료가 됐다.

7. 크리스마스 캐럴

14세기부터 캐럴은 대중적인 종교 노래의 한 형태로 간주됐다. 종교개혁 이후에 크리스마스 캐럴이 대중화되기 시작했



GRACE THEOLOGICAL SEMINARY

-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교회)
- 지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 목회전공
- + 선교전공

2022년 봄학기 온라인 수업일정

1월10일 - 3월6일
DI8310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기독교 선교역사)
*** 3/7/2022-3/13/2022 (봄방학)

3월14일 - 5월8일
DI8180 Cross-cultural Leadership Development (타문화 지도력개발)

2022년 여름학기 수업일정

5월23일 - 7월17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 D.Min in Ics.
PM 8610 Pastoral Counseling (목회상담) for D.Min in pastoral

5월23일 - 7월17일
DI8150 Contextualization (상황화)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카톡 ID: KoreanGTS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작고 초라해도 전심으로

교회 후임자 문제로 여러 가지 말들도 있었지만 명성교회 원로인 김삼환 목사님 같은 경우 주의 전을 사랑하고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분이시다. 단 한번도 그를 만난 적이 없지만 그가 경험하고 간증하는 은혜와 축복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모든 은혜의 연결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바로 자신이 섬기는 교회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다. 현재의 명성교회건물 지하 쪽에 가보면 교회박물관 같은 것이 있다. 오래전 한국방문 길에 잠시 둘러본 적이 있다. 그때 아주 인상적으로 보였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김 목사님이 섬기셨던 교회와 관련된 모형이었다.

젊은 시절, 흠뻑뿌 교회를 섬겼는데 어느 날 교회지붕이 헐어져 예배당 천장에서 비가 새더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애를 써 보아도 도무지 고칠 수가 없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안타까운 눈물이 흘러나와 샘처럼 터져 나오더라는 것이다. 빗물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가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는 그

는 뜻이다. 그분을 통해 우리 조국이 먹고 살만해졌다는 것이다. 은혜를 갚아야 사람구실을 하는 법인데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가 무엇인가? '새마을운동'이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을 할 때 새마을 노래의 첫 시작이 무엇인지 기억하는가?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이다. 어릴 때 그 새벽종 소리(후에는 벨소리)를 듣고 일어난 기억들이 있는데, 그 새벽종 소리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새벽기도 오라고 매일 새벽에 치던 종소리이다.

한국교회는 1년365일 새벽기도를 거른 적이 없다. 매일 이른 아침마다 새벽기도를 거른 적이 없었으니, 모든 백성들이 아침 해 뜨기 전에 교회의 새벽기도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 모든 백성들이 부지런히 일하면서 부강한 대한민국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실제, 박 대통령이 만든 새마을운동의 그 새벽종소리가 어디에 있는가? 구미 삼미교회의 새벽종 소리가 있다. 그분이 언제 어떻게 예수

광야에서 매일 아침 하늘의 만나를 거두었듯이 우리 민족도 매일 이른 아침 새벽에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먼저 거두며 살아왔던 것이다. 이런 나라와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지 않으실 수 있겠는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아름다운 영적 토양이 잘 가꾸어져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이른 아침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당시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아주 분명한 사랑의 증거가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임을 확신하게 되는 부분이다.

교회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삶의 환경들도 결국에는 그들이 가진 영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본다. 과거에 영국이 얼마나 번성했는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영국의 깃발에 아래 놓여 있었다. 그런데 몇년전 영국을 방문해 보니 영적으로는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것을 현상적으로 듣고 보았다. 한인교회 가운데 제대로 자립하는 교회가 안타깝

그렇게 교회가 비어져가고 교회가 무너져 내리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게 되었고 예배가 무너진 곳에 그들의 실제 삶도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영국의 많은 교회가 식당이나 빵집,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었

다. 영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큰 박물관과 외곽지의 성곽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작다. 차도 작고 집도 작고 길도 좁다. 작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모습 때문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이다. 식당이라고 들어가 보면 서로 의자를 부딪쳐 가며 식사를 한다. 호텔은 별이 서너 개가 된다고 해도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물도 시원하게 나오지를 않는 데 비싸기까지 하다. 결국 이 나라가 보여줄 것은 세계 각국에서 가져다 둔 고대유물이 전시된 대영박물관과 옛날의 화려한 영광을 보여주는 성곽뿐이다. 교단의 선배 목사님은 이러한 영국이 너무 마음에 걸려 영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밤낮 기도의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정말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통해 마른 뼈도 일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조용한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이사하여 최근에 집 가까운 어느 교회로 옮겼는데 그 교회 담임목사님은 말씀도 잘 전하시지만 교인들에게 성령충만을 매우 강조하는 목사님 같다고 느껴집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데 왜 또 성령충만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코로나에서 김 집사

A: 좋은 질문입니다. 성령충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충만은 다른 말로 예수충만이에요 내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전덕 목사님은 할아버지가 R. A. Torrey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은 늘 성령충만을 강조하셨던 분이십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충만하게 도와주소시오. 왜냐하면 성령충만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시오. 성령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시오. 성령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성령 충만은 명령...모두가 계속 받아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부패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죄악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령충만으로 무장받아야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18에는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헬라 원어를 통해 깊이 묵상해보면 4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명령형으로 되어있습니다. 명령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충만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성령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겠다는 것은 전생태에 총칼 무장 없이 맨 주먹으로 무장한 적과 싸우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2)복수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인 목사나 선교사, 전도사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령충만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3)수동태로 되어있습니다. 성령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붙잡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높은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충만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성령님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으시는 것입니다. 슬픔이 가득한 사람은 자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분노의 감정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4)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 용병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충만이라는 말은 계속 성령에 의해 충만되어져야함을 의미합니다.

지난날에 아무리 부자였던들 지금 빈털털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 옛날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는 힘이 있었어도 지금 몸이 허약하고 골골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제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왜? 나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개스를 일주일에만 한 번 정도씩 "fill it up"하여 계속해서 충만히 주입해야 하듯이 계속 성령충만을 구하여 성령의 재충만, 재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세웠다. 그때 저희 담임목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몇 달 동안을 즐기게 이야기하셨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지 아느냐? 그러시면 '교회를 사랑해라, 예배를 잘 드려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미국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복을 주실만한 기초와 기반이 되어있으니 시대가 아무리 흘러가도 변함 없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것임을 말씀해주신 것이다.

기본기의 회복, 삶의 축복

davidnj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교회, 세상과 삶의 축복 2

- 나라와 민족, 가정과 개인

안타까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은 결국 예배당 분당 바닥에 누워서 등쪽으로 그 떨어지는 흙들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명성교회의 은혜와 축복의 기원 혹은 원천이 되었기에 그 모형물을 전시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해보여도 주의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진 그의 신앙의 철학, 사상을 하나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어 주신 것이다.

민족을 깨우는 새벽 종소리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와 평가들이 있음을 본다. 기독교 신 문지상에서 정치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것이 없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잘살게 된 중요한 동력이 무엇인가? 를 질문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다. 잊어버린 듯 하면 늘 새롭게 등장하는 이름이다. 요즘, 팔순의 노모는 기도하면서 자주 말씀하신다. 박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오랜 시간 감옥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 나라가 이렇게 밥 먹고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딸을 감옥에서 좀 꺼내주면 안 되겠나?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함께 기도해다오" 이런 말씀을 자주 듣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그만큼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 많다

를 믿었는가? 이 부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다. 박대통령이 어린 유년시절과 문경의 초등학교 교사시절에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 생활했던 이야기들은 익히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기에, 여기에 유추해 볼 일이다. 게다가 대통령 재직시에, 구미 상모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할 때에 일정부분의 건축현금을 내었던 기록도 전해져 온다. 아무튼, 다른 사실을 차치하고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새벽 종소리에 일어나 잠을 깨우며 꿈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마침내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 온 나라와 백성들이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새벽기도 종소리에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맞보는데 아주 중요한 영적코드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더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그들은 성도라면 당연히 기도하고 중직이라면 당연히 새벽을 깨워서 교회와 성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당연히 기도했던 것이다. 하물며 조국 통일을 생각하면서 국 방방곡곡에 세우기도 했을 볼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저들의 기도의 헌신과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세상과 소통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새벽에 주님을 만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도 몇 군데 되지를 못했다. 게다가 한인교회의 목사님들의 꽤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다. 워낙 어려운 환경가운데서 사역을 하시다보니 필요한 후원을 요청하기 위함이라는 말도 들었다. 이처럼 피폐해진 영국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때, 교회를 무너뜨리는 영적 어둠들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영국에 계신 한 목사님의 안 내로 어느 빌딩에 이르게 되었다. 교회의 모습을 한 멋진 빌딩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빌딩 좌우에 간판이 따로 세워져 있는 것이었다. 왼쪽에는 'Under 21'이라 적혀 있었다. 그리고 빌딩 오른쪽에는 금주에 어느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한다고 쓰인 교회 광고판이 세워져 있는 것이었다. 설명을 들어보니 원래는 이곳이 교회였는데 빌딩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아래 지하를 세로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모습을 한 건물에 이층은 여전히 안내판의 내용대로 교회로 사용이 되는 반면에 지하층은 술을 먹고 춤을 추는 나이 트클럽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쪽에는 교회 안내판이, 다른 한쪽에는 나이트클럽에 입장불가하다는 뜻으로 'Under 21'이라는 간판이 세워졌던 것이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진을 찍어놓기도 했다.

이것이 영국의 영적인 실상이다. 원래는 교회였는데,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지 않으니 이젠 나이트클럽과 함께하는 그런 곳으로 교회가 변한 것이다.

으켜 세워 강한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삶의 목적과 방향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을 보면 이곳만큼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 세계 어디에도 없음을 보게 된다. 시골 어디를 가도 속도나 도로 등의 생활여건이 안전하게 잘 갖추어져 있다.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땅임을 알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연유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정교도 신앙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아주 오래전 유럽에서 배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출발을 했다. 남미로 가는 배들이 있었고 북미로 오는 배도 있었다. 남아메리카로 가는 배들은 황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배들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저들은 그토록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던 황금을 찾았다. 그러나 지금 저들의 삶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는가? 피폐하기 짝이 없게 되어 버렸다. 마약전쟁의 소문이 끊이지를 않고 북미의 선교지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그런데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었는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온 사람들이었다. 1984년에 중등학교를 다닐 때 LA올림픽을 TV로 본 기억이 있다. 올림픽을 할 때 제일 먼저 미국의 초창기 역사를 꼭 보여주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나? 교회를 세운 것이다. 교회를 세우고 다음으로 학교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응원(應援)

세상이 하 수상하다 보니 정상적인 것들보다 비정상적인 것들이 더 득세를 한다. 사람이 태어나 점점 자라다가 청년이 되고 그 뒤부터 나날이 쇠퇴해가는 것처럼 이 세상도 나날이 말세로 치달으면서 나타나는 당연하다(?) 싶은 현상이다. 이렇게 변질되어져가는 세상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말라기에 소개되어 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나 만군의 여호와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이신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며 거부하신다.

잘못조차 부인하며 기고만강한 자들의 역겨운 행태를 보시다 못해 망령된 자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을 자를 찾으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최소한으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양심을 주셨으나 그 마음에 화인을 맞은 대다수가 그 양심마저 잃어버렸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조차 어찌지 못하시고 눈을 감고 귀를 닫으셔야만 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그 증거다.

21세기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세상은 이미 경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잘못에 대해 최소한의 질책마저 느끼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런 세상에 휘몰아친 것이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 재앙이다. 의학·과학·우주학 등의 발전에 고무된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영역까지 넘본 채 하늘을 향해 사대질을 해대며 기세가 등등했으나 그것(?)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의 기습으로 멈춰서고 말았다.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타

를 입은 것이다.

위드 코로나는 세상을 위협한 바이러스와 함께 산다는 의미다. 정확할 수도 막을 수도 없으니 백신으로 면역력을 키우며 적당히 버티보되 질량이 있는 위험군이나 고령자들의 희생은 여쩔 수 없다는 고육지책이다. 그럼에도 유일한 방법인 세상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찾지 않는다. 말세의 증상이다.

망하기로 작정된 이스라엘이 그랬다. 위협과 위기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상에 기대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그들의 하나님이 찾지 않았다. 그래서 망했다. 유다도 망한 이스라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따라했다.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으며 그들의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당연히 유다도 망했다. 이 세상도 그럴 것이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즉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를 찾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나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롬11:1-5)는 말씀 때문이다.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 그들이 아직도 천년을 하루 같이 기다리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말세로 치달고 있는 이 세상을 붙잡고 있다. 아직 하나님이 구원하시려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 하는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택하

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들을 응원한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바이러스 연구에 몰두하는 학자일 수도 있다. 죽음이 임박한 중증환자를 살려보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료진일 수도 있다. 정의와 공의를 되살리기 위해 자기의 전부를 걸고 투쟁하는 정치인일 수도 있다. 진리의 복음을 외치며 평범한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를 대망하는 성도일 수도 있다. 강도당한 이웃을 돕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다.

그들을 응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 그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그들을 응원한다. 힘껏 응원한다.

사방이 막히면 하늘이 열린다고 한다. 말세에 그럴 것이다. 그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에 의해 남겨진 자들을 응원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CA, 텍사스 낙태제한법 본떠 총기규제 추진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캘리포니아주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텍사스주의 '낙태제한법'의 주요 조항을 본떠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한다.



12일 로이터통신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공격용 무기 제조업자와 판매, 유통업체 등에 대한 고소 권한을 일반 시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총기 규제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새 규제 법안은 공격용 무기를 제조, 유통, 판매하는 사람을 상대로 일반인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테면 건당 1만 달러의 소송 비용 등이 지원된다.

이는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의 주요 조항을 차용한 것이다. 지난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낙태제한법은 통상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기 시작하는 임신 6주 이후의 모든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일반 시민이 불법 낙태를 시술하거나 이를 방조한 모든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탄속이나 기소권을 추정부가 행사하지 않고 낙태 반대 시민단체 등이 불법 낙태 감시와 관련 소송전의 전면에 나서도록 한 셈이다.

뉴섬 주지사는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이 낙태제한법에 대한 반발 성격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어제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의 낙태제한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용한 판결에 격분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사소송 위협을 통해 파괴적인 무기 사용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며 “텍사스는 여성을 위협에 빠트리는데 시민들의 고소 권한을 사용했지만 캘리포니아는 인명 보호를 위해 그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0일 텍사스주의 낙태제한법 시행을 막아 달라는 연방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미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1심에서 이를 인정받았으나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이어진 최종 결정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진보 진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반면 보수 진영은 이를 반기고 있다.

"목회자 번아웃, 7가지 심표로 예방하라"

최근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바나그룹은 목회자 38%가 사역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심각한 번아웃 상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목회자들은 '번아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사역 특성상 한번 시작된 번아웃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번아웃은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심리적·생리적인



로 지친 상태를 말한다. 실제로 목회자들의 일상상은 분주하다. 매일 새벽기도와 수요·금요일 예배, 주일예배 설교 준비가 가장 큰 부담이다. 수시로 교인들의 이사나 개업, 임원 심방과 장례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목회자의 몫이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예배와 교회교육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은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런 부담은 담임목사나 부목사 모두 마찬가지다. 멀리 휴가를 떠나지 않고서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하지만 휴가 중에도 쉴 새 없이 목사를 찾는 연락이 온다. 그래서일까. 최근엔 '혼자 쉬고 싶다'며 하소연하는 목회자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번아웃에 빠지지 않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크리스체너티투데이가 운영하는 블로그 포럼 중 하나인 '더 베타 사마리탄(The Better Samaritan)'은 최근 레이먼드 장 '아시아계 미국인 기독교연합(AACC)' 회장의 '너무 늦기 전 목회자가 번아웃을 피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ACC는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개신교 단체다.

장 목사의 노하우는 '예배를 위임하라' '강단을 다양화하라' '공동체를 분산하라' '진실을 밝히라' '본질적인 부분까지 업무를 줄이라' '절제의 영성으로 들어가라' '의숙함을 넘어 진정한 섬에 도전하라' 등이다. 과중한 업무를 과감하게 중단하고 쉬기 위해 노력해야 번아웃을 피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목회현장에서 시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결단이 필요하다.

목사인 장 회장은 “코로나19와 교회 안의 정치적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게 스트레스의 근본 이유인데, 쉬기 위해서도 몇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사고에 '3010억 달러 배상' 판결

미국 법원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을 상대로 피해자 유족에게 무려 356조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텍사스주 뉴에비스 카운티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주류를 과다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 301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 배상액으로는 종전 기록 1500억 달러를 뛰어넘는 최대 규모다.

탈라 킨드레드(59)와 손녀 오주니 앤더슨(16)은 2017년 11월 집으로 향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146km로 달리던 조슈아 델보스키(29)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조슈아 델보스키도 그 자리에서 숨졌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델보스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3%에 달했다. 텍사스가 규정한 음주운전 기준 0.08%를 크게 초과한 수치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술을 마셨던 주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해당 술집은 가해자가 음주에 따른 심신상실 상태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족 변호인은 해당 술집은 폐업했고 이전 소유주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해 실제 손해배상액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번 판결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주점의 과도한 주류 판매를 경고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텍사스주류음료위원회(TABC) 대변인은 “텍사스 법은 주류 판매자가 술에 취한 고객에게 주류 판매를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이미 만취한 이에게 주류를 팔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여준다”고 전했다.

전세계 백신의무화 갈등, 점차 격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산을 이어가는 가운데 각국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공중보건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주장에 맞서 '부작용 우려를 무시한 채 개인이 접종 여부를 선택할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영국 런던에서는 백신 패스(접종증명서) 도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시위대는 정부를 독일 나치나 '빅브라더'(사회를 감시·통제하는 권력) 등에 빗댔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는 15일부터 일부 공공시설 출입 시 방역 패스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보수당마저 “백신 패스는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는 경찰 추산 4만4000명이 거리로 나와 백신 의무화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에 항의했다. 극우파 자유당 대표 허버트 키클이 주요 연설자로 나서는 등 극우진영이 저변 확대 기회로 삼는 모습이다.

오스트리아는 12일 봉쇄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백신 미접종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14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2월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이달 초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는 방역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과격 양상을 띠면서 최루가스 및 물대포까지 동원됐다. 지난달 말 20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는 경찰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2명이 중상을 입고 입원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 각국 정부의 최근 방역 규제가 백신 미접종자를 겨냥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분노한 거리 시위를 촉발시켰고 국가가 공중보건을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제약해야 하는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해설했다.

영국 켈대학 사회심리학과 클리퍼드 스토틀 교수는 NYT에 “백신 패스는 '우리' 대 '그들'로

나누는 사회를 만들어 양극화와 분열을 야기한다”며 “구조적 불평등을 증폭시켜 무질서를 초래할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런던의 인권변호사이자 코로나19 관련 법률전문가인 에덤 와그너는 “백신 패스 추진의 위험은 자유시장주의자와 백신 회의론자를 급진화시킨다는 점”이라며 “팬데믹이 터진 지 거의 2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충돌하는 가치에 대한 좋은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각국 정부는 방역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원 연구진은 추가 방역 규제를 하지 않으면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잉글랜드에서만 내년 4월 말까지 사망자가 최대 7만48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했다. 이 추정치는 지난해 초 대우행 시작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영국 내 사망자 12만7154명의 절반을 웃도는 것이다.

연구진은 실내接客 및 모임 규모 축소, 일부 유흥시설 폐쇄가 예상 입원자 수를 5만3000명, 사망자는 7600명까지 줄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현재 발표된 영국의 플랜B는 재택근무 장려, 대중교통 및 소매점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권장, 나이트클럽과 기타 대규모 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여부 확인 등이다.

영국은 지난 10일 신규 코로나19 감염자가 5만8000명을 넘기며 올해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성인 인구의 80% 이상이 접종을 마쳤고 부스터를 맞은 사람도 약 40%까지 늘린 상황에서도 감염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코로나19 입원자 규모가 지난 겨울을 웃돌지 않으려면 이달 18일까지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사지드 자비드 보건장관에 게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빨간 산타=코카콜라 광고" 동심파괴...

이탈리아의 한 주교가 어린이들에게 “산타클로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가 결국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1일 CNN과 BBC 방송 등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내 노토 교구의 안토니오 스탈리아노 주교가 최근 성 니콜라오 축일을 맞아 열린 축제에서 “산타클로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산타클로스의 빨간색 의상은 코카콜라가 광고 목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발언해 어린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전했다.

언론을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부모들은 주교의 발언은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거센 항의에 나섰다. 결국 노토 교구의 언론 담당자인 알레산드로 파올리노 신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파올리노 신부는 성명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교를 대신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스탈리아노 주교도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산타클로스가 없다고 말하려던 것이 아니라 진짜와 진짜가 아닌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였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어 “성탄절이 더는 기독교인만의 행사가 아니다”라며 “크리스마스 조명과 기념 쇼핑 사이의 분위기가 성탄절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며 소신을 드러냈다.

교회다운 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있네’라는 제목의 복음송의 핵심 구절이다. 그렇다. 교회는 교회되어야 한다. 성도들을 통해 반드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 그런데 어찌 너무도 당연한 일을 간절히 소원하며 찬양을 부르게 되었는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란 옛말이 있다. 현재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싶다. 그런데 교회와 관련된 문제를 논하려면 문제 자체에 대한 지적에 앞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마음 자세가 요구된다. 자칫 논쟁거리로 전락되어 예상하지 못했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해법의 첫 걸음은 문제 자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일 것이다.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원하셨던 참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교회는 현실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을 끌어안고 반응해야 했다. 이로서 교회는 2천년이란 긴 세월을 걸쳐오는 동안 매우 다양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다.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시기는 중세 유럽의 1000년 역사일 것이다. 이 시기 문화와 경제, 그리고 정치 등 사회 전반의 것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여 지점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세 유럽 이후에도 기독교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여왔다. 한 예로 미국 정부는 1919년부터 1933년까지 술을 만들어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주법’을 헌법에 포함시켰다. 그 당시 도시중심으로 사회가 변화되면서 노동자들이 술을 가까이 하며 생활이 문란해지고 파탄에 이르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이다. 미국사회의 중심을 이루었던 개신교 성도들은 도덕적 가치를 파괴하는 일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현재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교회의 정치참여에 대한 찬반의 근거 역시 교회의 교회다운 교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다.

무엇이 기준?

교회가 교회되어야 한다는 확신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그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공유하는 것이다. 중세교회의 경우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지니지 못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때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개신교도들

을 박해하여 313년 이후 초대교회에서 사라졌던 순교의 피를 흘리는 성도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구교 지도자들이 공유하였던 전통적 교회의 모습과 개혁자들의 주장하였던 성경이 가르치는 모습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교회의 영향력이 커져가면서 세속의 방식과 가치관을 수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회의 생명인 복음 중심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현대교회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중세처럼 사회를 향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세속화의 강한 물결의 영향으로 인해 교회가 휘청거리고 있다. 과거 사회에 대한 예언자 역할을 하던 모습

있다. 그들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입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아예 교회는 이런 소리에 원천적으로 귀를 막은 채 우리는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서로 위로하며 지내야 할까?

성경의 역할

교회의 일은 교회 자체가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16세기 종교개혁의 핵심내용 중 하나이다. 교회의 개혁이란 관점에서 바라본 중세교회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신

대한단 재력을 확보해도, 또한 사회를 향해 희생적으로 자신을 베풀어도 교회가 교회다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개혁이 필요하다. 교회의 앞날을 걱정하는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감해왔다. 그리고 성경적 교회가 유일한 돌파구라는 점도 확신했다. 교회개혁이 언급될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된 듯하다. 그럼에도 정작 교회는 더욱 개혁이 필요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대교회는 문제해결을 위한 말씀의 중요성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잘 알

각하고 행동해야 정상적인 모습을 지닐 수 있다. 사람에게 의해 고안된 방법과 목적이 교회의 원래 모습과 다르다면 결코 교회를 개혁시킬 수 없다. 아무리 뛰어난 것이어도 단순히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주위에 순수한 목회자들과 성경적 교회로 잘 성장하는 교회들이 제법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순수한 심자가 복음과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을 떠나 세상의 가치를 수용하고 세속적 목적과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연재된 글들 통해 시종일관하게 제안한 내용의 핵심이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는 우매함을 중단하라.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는 신념을 앞세워 손쉽게 영적 신기루를 거머쥐려 하지 마라. 일단 겸손하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 상세하고 분명하게 배우는 일에 몰두하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길은 교회에 대해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하는 자세로 배운 바를 실천하라. 학연, 지연, 혈연, 또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강한 응집력을 지닌 공동체 안에 안주하고 있다면 특히 이 사망에 귀를 기울여라.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하던 시점을 넘어 과연 얼마나 존속하느냐에 대해 우려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아직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대형교회들이 있고 골목마다 교회들이 즐비하게 있으니 염려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 착각이다. 젊은이들이 줄지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학생이 없어 주일학교교육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2천년의 교회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매우 분명한 교훈이 있다. 모든 교회에는 생명주기가 있다는 것이다. 신약성경에 등장한 초대교회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주도하였던 유럽의 교회들은 성도들의 광범명소로 남아있을 뿐이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결코 이와 같지 않기를 바란다. 생명력이 넘치는 성경적 교회로 남아있기 위해 개혁적 마인드를 지니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 모든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도 영원하지도 않다. 주님의 재림까지 교회는 주어진 사망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손에 잡힌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통로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개혁의 시작은 바로 ‘나’로 시작됨을 잊지 말자. 이 글의 독자들을 통해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 있게 확장될 수 있기를 진정 원한다.

covenantcho@yahoo.com (끝)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48)

부제: 교회사가 가르친다.(34) - 교회를 교회되게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하나님 뜻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통로가 진정한 교회 모습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개혁의 시작은 바로 ‘나’로 시작돼

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기독교는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시선이 매우 차갑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비판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과연 그들은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자 하는 적절한 소원과 함께 변화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자들의 마음에 새겨진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현대교회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였던 중세교회와 유사해졌다고 판단하고 전폭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교회 안과 밖에서 커져가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교회개혁을 외치는 뉴스 웹사이트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교회 내부와 목회자들의 비리와 비윤리적인 모습을 집요하게 파헤쳐 거침없이 세상에 드러냈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는 나름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상실한 윤리를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열광하는 자들과 목적은 이해가 되지만 그 방법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상반된 의견이 대두되었다. 현재 이런 종류의 뉴스에 대한 호불호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건과 사실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의도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외치는 비판과 우려의 소리가 제법 커져가고

양을 강조하는데 있었다. 신약은 성경이 아닌 사변적 철학의 틀 속에 갇혀, 영혼을 살리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힘을 잃은 상태였다. 윤리적인 면에서도 인간적 탐욕의 늪에 빠져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 개혁자들은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개혁자들의 배경이 다르고 강조점이 달랐지만 그들 모두가 지녔던 공통적인 의지는 성경을 교회가 교회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교회의 개혁은 바로 교회의 책임이다. 또한 개혁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종교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는 속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신교 시작의 중심에서 있었던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중용을 중시하며 구교를 끝까지 떠나지 않았던 에라스무스와 같은 인물까지라도 교회를 향한 비판 자체를 묵착하지 않았다. 그들이 개혁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적 교회로의 회복을 염원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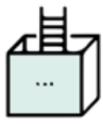
지상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 상황과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앞으로 교회는 온갖 문제와 씨름하여 존속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항상 끝까지 남아있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님은 교회가 교회되는 기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보일 지라도, 엄청난 수의 성도들을 모으고

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 자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교회가 스스로 그 위치를 포기하고 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려한다. 특정 성경구절을 사용할 때 성경의 전체 내용 안에서 이해하기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추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의 관계에 있는 상대를 무찌르는 도구로 전락될 수도 있다. 이뿐 아니다. 아예 문제해결을 위한 말씀의 역할을 무시한 채 교회가 세상법정으로 가서 영적인 문제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즐비하다. 즉 교회와 성경의 밀접한 상관관계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부터 동떨어진 모습을 추구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교회란..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속적인 영향과 맞서 싸워야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이런 목적을 이루려면 먼저 교회는 반드시 교회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선물이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다. 지체는 머리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생

Worldwide Church Directory (Worldwide Church Directory)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Los Angeles, San Diego, and other parts of California.



“With Corona-19 문화: 종말론적 조명(Outlook)” (4)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실패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소수의 ‘남은 자들’(שרי, λειμμα, λοιπος, remnant:사 6:13,10:20,11:10-12; 렘23:1-4, 31:7-8; 단1:8-9; 욥2:28-32)을 통해 이어졌으며, 마침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정점을 이루게 된다.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주도해 나가심을 확증하고 있다. 초대교회 제자들 위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이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이어져 다(행2:1-21; 롬9:27-29, 11:5),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천년왕국의 승리적 교회의 열매들로 거두게 될 것이다(계12:17, 14:1-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지상세계에 임하는 7년 대환란과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어지는 천년왕국의 모습을 단선적인 사건이 아니라 입체적인 스펙트럼으로 그려주고 있다. 처음과 나중 되신 그리스도께서 일곱 금 촛대 위를 거니시는 그리스도의 모습(1



최동진 목사 (센디에고 반석장로교회)



회적 교훈으로 위로와 격려, 소망을 내포하고 있다.

점진적인 승리적 교회 (4-19장)

지상 대 환란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환란을 통과 하는 승리적 교회의 모습을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4생물로 비유되는 어

하게 살피야 할 것은 7년 대 환란의 주도권이 때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의 주도권으로 그가 보낸 7천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러한 대환란의 원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우상과 음란하게 혼합된 사악한 권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모습임을 입증하는 것이다(계15:1).

마침내 큰 음녀로 비유되는 바벨론의 멸망(18장)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백마 탄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6:2; 19:11-16)과 그가 친히 통치하는 천년왕국(20장), 이후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21장) 등의 모습은 처음과 나중되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 곧 하나님의 구속

그리스도 재림으로 완성되는 구속사 이해하면 펜데믹도 안 두려워 교회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보호와 인도하심 약속돼

13, 20:4). 한 마디로, 아무리 어둡고 불확실한 인류문명의 미래라 할지라도 정교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consummation)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7년 대환란기(the Great Tribulation)를 거쳐 가는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일 뿐 아니라 피조물의 구속이 완성되어질 그 날이야말로 인류문명의 유일한 소망이고 대안임을 요한 계시록은 다양한 그림언어로 보여주고 있다.

요한계시록, 구속사적 Inclusio(수미쌍관, 首尾雙關)

장)은 대속의 승리와 함께 높이 들림 받고 보좌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가 그의 품되신 교회 위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대한 지상 교회의 다양한 반응에 대한 주님의 평가와 대안이 대 표적으로 묘사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모습들(2-3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교회에 귀한 도전과 교훈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전개될 대 환란기에 도 불구하고 그의 신실한 교회는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통치하고 계신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책망과 칭찬의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지상 교회를 향한 경계와 경고임과 동시에 성도의 성

린양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둘러선 24장로들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승리적 축제의 전상의 영광스런 예배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4장). 이러한 막간을 통해 보여지는 전상의 장면은 앞으로 이어질 이 세상에 대한 7년 대환란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되신 교회의 승리를 소망하고 동경하도록 그려지고 있다.

7년 대환란(the Great Tribulation)의 모습(6-18장)은 7인을 때의 재앙, 7나팔을 부는 재앙, 7대접을 쏟는 재앙으로 구별되는데, 이는 점진적이며, 지속적이고 보다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며, 심증화되는 특징을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여기서 중요

사의 인클루지로 아름답게 연결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구속사의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된다면 코로나19 Pandemic의 상황이나 혹은 앞서 열거한 현대 과학문명의 불확실성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때로 지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이 여전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이 약속되어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가 보증되어지기 때문이다.

joindjc@yahoo.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LA비전교회 협력)

이혼가정 자녀외복(10) 엄마, 사랑해요

수업이 끝나고 방과후학교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고개를 돌리니 엄마였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엄마였지만 나도 모르게 눈길을 멀리하다가 미니밴이 도착하자 서둘러 타게 됐어요. 엄마한테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라는 말은 고사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그날 저녁 아빠가 ‘오늘 잘 보았니?’ 하고 물어봤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내 방으로 들어왔지요.

자녀와의 만남 막는 일 없어야

부부간은 무촌, 부모자식간은 일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란 둘 사이의 간격이 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다가도 돌아서면 전혀 관계없는 무촌이지만 부모자식간은 무일 해주고 안해 주고를 떠나 가장 가까운 일촌의 관계라는 말이겠지요. 자녀들에게 양쪽 부모를 위한 자리가 나란히 있는지, 한쪽 부모가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는다고 해도 한쪽 자리가 비게 되면 그들이 성인이 되어도 허전해할 뿐 아니라 혹시 떠나간 부모를 흉내낸 경우가 있었다면 두고두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육을 맡고 있는 부모는 자신이 채울 수 있는 자리의 한계를 깨달으며 헤어진 배우자의 부모로서 가지는 권리를 존중하여 자녀와의 만남을 막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들이 자녀를 만나보고 싶어 할 경우, 두 번 보고 싶지 않은 처가 혹은 시댁 식구일지라도 자녀들과는 따뜻한 피를 나눈 할머니, 이모, 고모, 삼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이며 자신은 단지 청지기임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서로라도 떠나간 부모와의 만남 속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허락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곁에서 자녀들의 자라남을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줄 수 있는 친지나 주일학교 교사들이 시도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부모님들이 서로는 사랑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을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면서 어떻게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해야할 지를 나누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난 후와 자기 전에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가, 식탁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부모님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해요 라고 가끔이라도 말하는가에 대해 나누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밖에 안타까운 경우지만 떠나간 부모가 찾아오지 않아 혹은 동거 부모님이 만남을 금지해서 거의 못 보게 되더라도 두 부모님을 사랑하고자 마음먹어야 한다고 알려주십시오. 떠나간 엄마나 아빠에 대한 섬섬한 마음이 앞서 사랑이라는 용어 자체가 힘겹게 다가올 수 있지만, 사랑은 따뜻한 기분이라는 것이며 선택과 결정에 달린 것이 라고 말해주며 마음에 정하면 가능한 것임을 가르쳐 주십시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 여호와와 명함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5:16) 등의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것을 말해주며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설득하십시오. 더불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주위에 너를 아끼며 관심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격려하십시오.

다음으로 성경말씀 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장소에 계시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네 어머니처럼 잘 모셔 달라고 부탁하시는 내용을 나누면서(요19:26,27) 무슨 일이 일어났던지 부모님께 효도하며 사랑을 표현하자고 나눈다면 그들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hyojungyoo2@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 예배: 오전 11:30 주일 그룹 교제 및 기도회: 오후 1:00 주일 학교: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성경공부/기도회: 수요일 밤 8:00 디너족 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4:00-7:00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월새벽기도회: 오전 6:00	벅스키온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어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킬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회: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7시 수 오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메시아를 만나려면

대강절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며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자신의 영적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당시의 왕도 대제사장도 구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서기관들도 이스라엘의 랍비들도 몰랐습니다. 하늘의 계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눅18:8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

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천군천사들의 메시지를 받은 목자들, 하늘의 계시를 받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목자들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소식을 천사들을 통해 제일 먼저 전달 받은 자들은 밖에서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눅2:8).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도 양 떼들을 해치려고 노리는 맹수들에게서 양 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watch well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일에 사랑의 가슴을 안고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둘째, 목자들은 하늘을 바라

보는 자들이었습니다(눅2:9). 목자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야가 이 어두운 땅에 감람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밤을 지새운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목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천사를 보내어 하늘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은 바사의 점성가들이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눈에 이상한 별이 나타나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예언서에 기록된 메시아 탄생이라는 걸 믿고 무려 4개월이나 걸려 베들레헴을 찾아왔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중엔 도마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들의 뼈는 팔로디온이라는 대성전에 묻혔다고 합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세상의 별을 쫓아 헤롯궁전 같은 곳을 찾아 헤맸다. 경제의 별, 정치의 별, 명예의 별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실망하고 돌아설 때 비로소 광명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동방박사처럼 기뻐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목자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눅2:10-11).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흥남부두에서 14000명의 피난민을 싣고 거제도도 갔던 메르디스 빅토리호와 같은 배가 San Pedro 항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샌페드로 항에 갔더니 정말 거기 있었습니다. 그 배는 Lane 빅토리호란 배인데 메르디스와 쌍둥이였습니다.

당시 6.25전쟁이 일어나서 두달 만에 대구, 부산만 남기고 모두 적군의 손에 넘어갔는데, 맥아더 사령관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유엔군과 국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작전상 후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원산

은 이미 중공군의 손에 넘어가고 흥남부두로 10만명의 유엔군과 국군이 몰려왔습니다. 거기에 10만명의 피난민들이 살기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군함을 타지 못하면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살을 에는 흥남부두의 추위 속에서 그들은 발을 구르며 배에 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10군단장 알몬드는 군인과 물자만 군함에 실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때 미10군단 민사고문이었다던 현봉학 씨는 알몬드를 찾아가 난민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참모장 포니도 도왔습니다. 현봉학 씨가 얼마나 애원을 했는지 할 수 없이 알몬드 군단장이 난민을 태울 것을 허락하자 화물선인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선장 라루는 “모든 무기를 버리고 1명이라도 더 태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원 60명 승조원을 태우는 빅토리호에 14,000명을 태우고 출발하여 3일 밤낮을 추운겨울바다를 달려 195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사흘 동안 배 안에서 5명의 생명이 태어나 도착할 때 14,005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세계 역사는 “한국전쟁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의 주역은 바로 현봉학 씨였습니다. 현봉학 씨의 설득으로 알몬드 군단장이 “난민도 군함에 태우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 이 소식이 바로 죽음 앞에 떨고 있던 난민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흥남부두의 난민들에게는 군함에 오르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지만 그들의 생명은 결국 50년, 80년 안에 끝나는 생명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목자들처럼 사명을 깨닫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주의 재림을 대망하며 경건히 살아가므로 언제 어디서나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songpkak@hotmail.com



세기연 회원들과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수상자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신임회장에 이영선 목사 추대

세기연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공모 시상식

세계한인기독교연맹회(세기연, 회장 조명환 목사)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시상식 및 총회가 9일 오전 11시 Homitel Suites 회의실에서 열렸다.

조명환 목사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와 시상식은 유우경 본부장(크리스천헤럴드)이 기도했으며 서중천 목사(크리스찬투데이 발행인)가 ‘크리스천 미디어의 사명(사21:11-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서중천 목사는 “기독교언론은 첫째, 진리의 파수의 첩병의 사명이 있다. 둘째, 항상 깨어있는 언론이 되어야 한다. 셋째, 분명한 디렉션을 어둠의 세상을 향해 갖

고 있어야 한다. 넷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도구로 사명을 시원하게 감당해야 한다”며 “거짓이 없는 진리 일꾼으로 나아가 복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철 목사(에피포도 예술인협회 대표)는 “올해는 특이한 해다. 가장 적은 응모가 이뤄졌다. 이 시대 글을 읽지 않는데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며 “그러나 적은편수가 응모됐지만 작품들은 가장 수준 높았다”고 말했다.

백 목사는 “독후감 모집규정상 수상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한국에서도 응모가 됐다”며 “소망하는 것은 공모를 통해 기독교학자가 배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상자중 장려상을 받은 홍수연 자매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선택해서 독후감을 썼는데 이 책은 변증론적인 거 같아 선택했다”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세상에 잘 전달하는 작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편견 없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으며 정요한 목사(LA평통 종교자문위원) 축도로 마쳤다.

조명환 회장 사회로 열린 2부 총회는 이성자 서기의 회원점명, 사업보고, 서인실 회계의 재정보고가 있는 후 임원선거에서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를 신임회장에 추대했다.

이영선 목사는 “언론사역 5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서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신앙공동체의 생사가 긴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문 닫은 교회가 많다. 새로운 흐름을 찾으려고 한다. 가주는 진보적이라 교회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데 세기연에서 이 부분이 논의됐으면 한다.”

(11면으로 계속)



고 김인환 총장 추모예배가 지난 12일 뉴저지 아가페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제자 및 지인들 한자리에

고 김인환 총장 추모예배, 아가페장로교회에서

총신대학교와 대신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김인환 목사의 추모예배가 지난 12일 뉴저지 아가페장로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렸다.

아가페장로교회는 생전 고인이 미국내 거주 시 출석했던 교회로, 이날 총신대 제자 및 지인들은 예배를 통해 김인환 목사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추모사를 맡은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본지 발행

인)는 신학교 재학 시 김인환 교수의 강의시간에 ‘성경을 보면서 눈이 떠졌던’ 때를 떠올리며 개혁주의 신앙을 가르쳐준 김인환 총장을 추억했다. 또 “미국유학을 결심했을 때 격려해주시고 총장 시절 육(?)을 먹여도 진리에 타협하고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명 감당에 본을 보이셨다”는 말도 덧붙였다.

예배는 김남수 목사 인도로 기도 정독실 목사, 조가 차남 김재영 김지혜 부부, 설교 김

남수 목사(‘부활신앙’), 영상으로 보는 김인환 총장, 유족인사 주문상 장로, 축도 김남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고 김 총장은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웨일즈대학교대학원에서 구약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총신대 신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평생교육원 원장, 교무처장을 거쳐 2004년 총신대 제3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총신대총장 후에는 대신대학교 제7대 총장과 아프리카 스와질랜드대학 총장을 역임했다.

지난 11월 15일 75세로 소천을 받은 고인은 한국에서 많은 교계 지도자들과 제자들의 환송 속에 총신대학장으로 발인예배를 마치고 송환절차를 거쳐 12월초 미국으로 옮겨와 프랭크린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됐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주정숙 사모와 장남 재신, 장녀 유미, 차남 재형이 있다. 고인의 형은 서울신학대학 학장 김춘환 목사이며, 차남 재형은 아가페글로벌벤처치료를 맡고 있다.

(유원정 기자)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엔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문 한문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 사
 영 어: _____ 평 신 도

배 달 주 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 달 주 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 __월 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동부교계 기사판

“오직 성령으로 회복을!”

뉴욕교협 주최 미스바회개운동 개막

말했다. 최혁 목사는 “팬데믹으로 교회를 닫게 하고 우리를 삶의 현장에 가둬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도전했다. 최혁 목사는 13일 새벽 5시 30분 “사랑의 회복”(고전 13:7), 오전 10시 “기도의 회복”(마7:7-8), 오후 2시 “믿음의 회복”(히11:1-3), 저녁 7시 30분 “섭리의 회복”(고수 12:7-10)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두 번째 강사 박성규 목사(LA 주님세운교회 담임)는 14일과 15일 하루 4회의 예배에서 총 8회의 말씀을 전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센트럴교회 헨델 메시아 공연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가 주최하는 이웃초청 2021 성탄음악회 ‘헨델의 메시아’ 공연이 12월 19일(주일) 오후 3시 동 교회에서 열린다.

뉴욕크로마하프연주협회 제 2회 정기연주회
 뉴욕크로마하프연주협회(회장 이진아 목사, 단장 손옥아 권사) 2021 성탄절 선교를 위한 제 2회 정기연주회가 12월 19일(주일) 오후 5시 GOOD TV방송국(렉처홀)에서 열린다.



CTS뉴욕방송 후원이사회 설립 및 송년감사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초대이사장에 김종훈 목사 “소금과 수건처럼”

CTS뉴욕방송 후원이사회 설립 및 송년감사예배

CTS뉴욕방송 후원이사회 설립 및 송년감사예배가 12월 8일 오전 11시 리셉션하우스에 개최됐다. 이날 초대 이사장으로 김종훈 목사(뉴욕예일장로교회)가 취임했다. 김종훈 이사장은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며 “혼자 있을 때는 소금처럼 희생하며 사명을 자각하고 함께 있을 때는 발을 씻어주는 수건처럼 1)들어주는 섬김 2)돕는 섬김 3)진을 함께 지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CTS방송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며 기도를 부탁했다. 1부 감사예배는 김일국 목사(뉴욕한성교회) 인도로 기도 최호섭 목사(뉴욕영락교회), 성경봉독 육민호 목사(뉴저지주소원교회), 특송 바이올린/유안나 비올라/연석윤 트럼펫/유요선 피아노/정지은, 소프라노 조애실(말일선교합창단), 말씀 방지각 목사, 합심기도 및 축도 김호성 목사(국제도시선교회 대표)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원로)는 “네 사람의 믿음”(막2:1-12)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배에 은혜 받아 섬기는 것 중 최고가 선교”라며 본문에 중풍병자의 고침이 야기에서 선교 방법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방 목사는 “선교는 1)사랑 2)확신 3)협동심 4)장애극복이

있어야 한다”며 효신장로교회가 불타올 때 코스타리카에 교회건축을 한 것을 간증하며 심은 대로 거둔다고 전했다. 2부 후원이사회 창립은 조원태 목사(뉴욕우리교회) 사회로 사역소개 영상, 후원이사장 위촉식 및 감경철 회장 인사(대독) 감덕규 본부장(CTS America), 위촉패 전달 및 취임사 김종훈 목사, 축사 김희복 뉴욕교협회장, 영상축사 김영두 니카라과선교사, 권체경 애청자, 최선규 아나운서 김지선 집사(CTS내가매일기쁘게 진행자), 오찬기도 박태열 목사(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감경철 회장은 오미크론으로 한국에서 오지 못해 감덕규 본부장이 인사말을 대독했다. 후원이사회는 김종훈 이사장 외 21명과 7개 단체가 협력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사들이 이날 순서를 맡아 진행했다. CTS뉴욕은 손민석 국장 체재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LA에 본부를 두고 있다. 한편 15일에는 조희창 목사(낮은울타리선교회 미주대표)를 강사로 뉴저지한우리교회에서 특강(1)오징어 게임과 메타버스 2)다음세대의 비전과 직업이 공개특화 됐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이 주최하는 미스바회개운동이 지난 12일 저녁 5시 시작돼 15일까지 하루 네 번의 집회를 진행했다.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에서 열린 첫날 집회에서 회장 김희복 목사는 “세상이 교회를 격정하는 시대가 됐다. 교회회장으로 사죄드린다”며 큰 절을 했다. 김 목사는 “참 목사가 되겠다. 교협과 교계, 교회를 사랑해 달라”며 뉴욕교계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회개기도를 드렸다. 이어서 한재홍 목사도 회개기도를 인도했다. 예배는 박마이클 목사(준비위원장) 인도로 경배와찬양 모자이크교회 찬양팀, 회개기도 김희복 목사 한재홍 목사, 성경봉독 김일태 이사장, 찬양 뉴욕장로성가단, 설교 및 회개기도 최혁 목사, 헌금기도 송윤섭 장로(뉴욕장로연합회 회장), 헌금송 정성진 안수집사(프라미스교회), 광고 임영건 목사(총무), 축도 김원기 목사(증경회장단 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강사 최혁 목사(LA 주안예교



미스바회개운동 첫날 집회를 마치고 강사 최혁 목사와 교협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회 담임)는 “예배의 회복”(창 4:1-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해 설명했다. 최 목사는 1)하나님은 왜 모든 예배를 받지 않으시나요? 삶의 현장에서 악(포넬리아, 내편안과 유익을 위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행하는 자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2)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히11:4).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손해를 보고 있나? 3)가인은 사람들의 시선만

을 의식했다(본문8절).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았다고



미스바회개운동 제 3차 준비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회개하고 겸손하며 기도하라”

미스바회개운동 제 3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이 주최하는 미스바회개운동 제 3차 준비기도회가 지난 9일 오전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에서 열렸다. 미스바회개운동은 12일 저녁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이날 회장 김희복 목사는 “퀸즈 최초의 교회인 퀸즈한인교회에서 미스바회개운동 집회를 갖게 됐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는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준비위원장 박마이클 목사는 “열기가 더해간다. 하나님을 섬기면 능력을 주셔서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며 현재 금식기도 참여자가 762명이라며 더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또 1월 1일부터 사흘간 개최하는 신년금식성회 준비위원장 김기호 목사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성회”(사58:6)라고 주제를 소개하고 △1일(토) 오후 7시30분 △2일(주일) 오후 5시 △3일(월) 오전 6시, 10시, 오후 2시, 7시30분 집회를 한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박마이클 목사

인도로 경배와찬양 김경길 목사, 기도 전희수 목사, 설교 방지각 목사, 합심(통성)기도 임병순 목사(회개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박항우 목사(미스바회개운동 집회를 위하여), 이종선 목사(동포사회와 뉴욕교협 및 목사회를 위하여), 문종은 목사(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김정숙 목사(북한 북음화 및 세계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김기호 목사(신년금식성회를 위하여), 축도 최창섭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땅을 고쳐 주리라”(역대하7:11-1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약한 길에서 떠나라-회개 2)스스로 겸비하라-겸손 3)내 얼굴을 구하라-기도 등 3가지”라며 지구촌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나열하고 “미스바회개운동으로 교협이 전무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전무한 은혜가 쏟아지기를” 기도했다. (유원정 기자)



미주한인여성목회협의회 “여성목회자의 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만호 목사 초청 성령대망회 열어

미주한인여성목회협의회 “여성목회자의 날”

미주한인여성목회협의회가 주최한 선교와 구제를 위한 “여성목회자의 날” 행사가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에서 개최됐다. 제 13회기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표어로 시작된 13회기는 이번 연례행사 강사로 이만호 목사를 초청해 성령대망회를 열었다. 회장 이진아 목사(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사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웃고 사는 것이 장수비결인데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얼마나 기쁘게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기도하면서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하나님의 군대로 전진하는 신앙을 갖고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자”고 도전했다. 강사 이만호 목사는 오전에는 “성령의 사람”(사61:1-11)이라는 제목으로 오후에는 “성령이 살린다”(골3: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만호 목사는 “앞서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바란다”며 “하나님의 최대관심사는 피조물들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이 곤고한 현장에서 성령께 의탁하고 승리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만호 목사는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면 모든 악을 대적할 수 있다”며, 뉴욕 목회에서 실패했던 경험을 간증하고 “주변의 의견보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본문을 한 절씩 풀어가며 설명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분리가 아닌 화합이 일어난다. 그러나 회개는 반드시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1부 성령대망회는 부회장 하정민 목사 사회로 대표기도 김신영 목사(증경회장), 인사말 이진아 회장, 축사 김희복 목사(뉴욕교협 회장), 성경봉독 오정순 목사, 특송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 말씀 이만호 목사, 봉헌기도 박수자 목사, 광고 백금숙 목사, 축도 이만호 목사, 오찬기도 이준성 목사(뉴욕교협 부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오찬 후 2부 성령대망회와 3부 교제시간이 이어졌다. 미주한인여성목회협의회 13회기 남은 행사는 △2022년 2월 28일-3월 12일 한국선교방문 △제 14차 컨퍼런스 6월 13일-15일 스크로마하프, 웃음치료 등이 예정돼 있다. (유원정 기자)

내년 15주년...새롭게 변화된 축구단으로

뉴욕목회자축구단 새 단장에 문석진 목사

뉴욕목회자축구단이 12월 8일 오후 6시 뉴욕주심교회(담임 이지훈 목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 단장에 문석진 목사를 선출했다. 이날 안건은 △회원의 자격에 대한 회칙개정건과 지난 임시총회 때 결정된 3번 안에 대한 실행으로 현 단장 및 임원단 사임에 의한 △새 단장 선출 건 등이었다. 임원 선거에서 새 단장으로 김인식 목사와 문석진 목사가 추천됐으나 김인식 목사의 고사로 단독후보인 문석진 목사를 박수로 추대했다. 신임 단장 문석진 목사(썬존 대표·뉴욕기독교방송 사장·기독교뉴스 발행인)는 “감사드립니다. 목사회원으로 구성된 축구단은 목사들의 건강을 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체”라며 “2007년에 뉴욕목회자 축구단이 창단

돼 내년이면 15주년이 되는데 앞으로 새롭게 변화된 축구단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인사했다. 뉴욕목회자축구단은 축구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고 복음을 효과 있게 전파하고 회원교회가 서로 도우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14년 전에 창설됐고 임원 임기는 2년이다. 축구단은 현재 재적 38명의 회원 중 20명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베이사이드 2107에 있는 레이몬드 오코드 파크에서 운동하고 있다. ▲입단 문의: (347)538-1587



뉴욕목회자축구단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통합추진위원회, 이사회 구성

뉴욕원로성직자회 12월 예배 및 월례회

대뉴욕지구한인원로성직자회가 지난 14일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12월 예배 및 월례회를 열고 2022년 신년계획안을 발표했다. 회장 한문수 목사는 이날 임원회를 거친 2가지 안건과 1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1)뉴욕원로목사회와 통합을 위해 증경회장 중 거동이 가능한 방지각 목사와 윤세웅 목사, 회장단(회장 한문수 목사, 부회장 이병수 목사 조의호 목사) 3명 등 5명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2)회칙에 제시된 증경회장단을 이사회로 변경하고 이사장에 윤세웅 목사를 선임했다. 한문수 목사는 문화관광의 일환으로 맨해튼 일일관광, 보스턴, 나이아가라폭포, 워싱턴 DC 1박2일 관광을 계획하고 있다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맨해튼 관광은 점심(팀 제외), 차량 모두 회장이 준비하며 1박2일 관광은 숙박

비(50달러)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2부 월례회에서는 직전 회장 윤세웅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윤세웅 목사는 “부회장 한문수 목사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잘 안됐다.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자주 모이고 재미있게 지내라”고 조언했다. 1부 예배는 한문수 목사 인도로 설교 김성국 목사(“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눅2:25), 특주 신동기 목사(트럼펫), 헌금기도 이승진 목사, 축도 윤세웅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월례회는 이병수 목사 사회로 감사패 증정, 기도 방지각

목사, 신년계획안 발표에 이어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조의호 목사가 식사기도 했다. 이날 오찬은 고 박문근 목사 가정에서 준비했으며 퀸즈장로교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케익을 선물했다.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한문수 목사 △수석부회장 이병수 목사 △부회장 조의호 목사 △총무 이강일 목사 △부총무 윤혜경 선교사 △서기 박황우 목사 △회계 이승진 목사 △감사 김진 목사. 한편 팬데믹 기간에 회원 중 김경국 목사, 최승호 목사, 최웅렬 목사, 박문근 목사가 별세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원로성직자회 12월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올림픽장로교회 이수호 담임목사 부부와 정장수 원로목사 부부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수호 담임목사 취임/정장수 원로목사 추대 올림픽장로교회 30년 하나님의 은혜

올림픽장로교회 이수호 담임목사 취임 및 정장수 원로목사 추대 예배가 12일 오후 4시에 열렸다. 이날 원로목사로 추대된 정장수 목사는 "30년간 올림픽장로교회 사역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 그리고 30년간 평화롭게 목회한 것에 감사한다. 또한 훌륭한 후임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어려운 시대를 후임자에게 맡기는 것이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이 시대 지역사회와 미국을 위해 이수호 목사와 본교회가 힘차게 일할 수 있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후임자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담임목사로 취임한 이수호 목사는 "정장수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목회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고 그것이 축복이자 은혜였다"며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생길 중 이곳으로 인도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려사를 했으며 임바울 목사가 원로목사 추대패를 증정하고 정장수 목사가 답사했다.

3부 담임목사 취임식은 박형주 목사가 담임목사 및 교인서약, 그리고 공포 및 기도를 했다. 이어 임바울 목사가 담임목사 취임패를 증정했으며 김태형 목사(ANC은누리교회)가 권면과 축사, 이수호 목사가 답사, 문혜원 집사가 축가를 불렀다.

한편 이날 영상으로 축하메시지가 소개됐는데 김희근 목사(전남 강진 마량중앙교회), 양준길 목사(뉴저지 필그림선교회), 허성현 목사(오스틴 주님의교회), 박현성 목사(토론토서부장로교회)가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예배는 류용호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한인기독합창단 제 61회 정기연주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찬양할 때 하늘 문 열리고...

한인기독합창단 제61회 정기연주회

한인기독합창단(단장 김은영, 지휘 김동근) 제 61회 정기연주회가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에서 12일 오후 7시에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 연주회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야였으며 연주회에서는 합창단원 50명과 소프라노 윤예원, Orleana Falla, 테너 전승철, Anord Geis, 바리톤 김수찬, 채홍석 등이 솔로리스트로 출연해 은혜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연주회가 열리기 전부터 한인기독합창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 관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들었으며 연주회가 시작할 때는 이미 객석이 가득 찼다. 또한 한국 한국이 연주될 때 박수갈채를 보내며 큰 호응을 보였다.

연을 선보였다.

연주회가 열리기 전부터 한인기독합창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 관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들었으며 연주회가 시작할 때는 이미 객석이 가득 찼다. 또한 한국 한국이 연주될 때 박수갈채를 보내며 큰 호응을 보였다.

(박준호 기자)

하나님의 전적인 ...

(2면에서 계속)

미국인 10명 중 약 3명(31%)은 예수께서 생명을 풍성히 주러 오셨다고("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10:10 CSB) 그리고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강림하셨다고 믿는다("나는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를 증언하려 함이니라"(요:18:37 CSB).

그러나 훨씬 적은 미국인(9%)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주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보다 분열을 주러 오셨다고 믿는다. 전체적으로 미국인의 3%만이 목록에서 예수의 성경 인용문과 일치하는 네 가지 옵션을 모두 인식했다.

미국인 10명 중 1명 미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른 이유를 잘못 식별했다. 9%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셨다고 믿고(마가복음 10:45과 모순됨), 8%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고 선지자들(마태복음 5:17과 모순됨), 그리고 8%는 예수께서 죄인들을 정죄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한다(요한복음 3:17과 모순됨).

결론으로, 맥코넬은 "예수님이 실제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말씀했는지에 대해서는 훨씬 덜 친숙하다"고 이번 설문결과를 평가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믿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입니다."

이유를 잘못 식별했다. 9%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셨다고 믿고(마가복음 10:45과 모순됨), 8%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고 선지자들(마태복음 5:17과 모순됨), 그리고 8%는 예수께서 죄인들을 정죄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한다(요한복음 3:17과 모순됨).

결론으로, 맥코넬은 "예수님이 실제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말씀했는지에 대해서는 훨씬 덜 친숙하다"고 이번 설문결과를 평가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믿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입니다."

(박준호 기자)

신임회장에 이영선 ...

(9면에서 계속)

말겨진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타 지역 분들도 참석할 수 있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이영선 목사 기도로 마쳤다.

다음은 독후감 수상자와 세기인 신임임원 명단이다.

수상자 △우수상: 장소영,

허양희 △장려상: 홍수연, 사론정

신임임원: △회장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 △부회장 조명환 목사(크리스천워클리), 이성자 전도사(미주크리스천신문) △서기유우경 총괄본부장(크리스천헤럴드) △회계서인실 국장(크리스찬투데이).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이후정 감신대 총장 환영 및 성탄축하예배

감신대 미서부지역 동문회(회장 조건갑 목사)는 오는 12월 21일(화) 오전 11시 로스펠리츠연합감리교회(담임 신병욱 목사)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이후정 감신대 총장 환영회 및 성탄 축하예배를 드린다. 또 장학금 모금 골프대회를 통해 조성된 장학금 수여로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동문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626)379-6658 (626)379-6658(총무 신병욱 목사)

선교와 사역 웹사이트 운영

그레이스미션대학(총장 최규남 박사) 2022년 가을학기 특별 공개특강이 오는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월-목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30분까지 플러턴 현장 강의실과 Zoom 실시간 및 녹화 방식으로 "선교와 사역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라는 제목으로 개설된다. 강사는 제임스 구 교수. 컴퓨터 교사 Certification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과정에서 교육학 2과목, 컴퓨터 과목 8과목, 성경 2과목 및 Christian Philosophy of Education(CPoE)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주요 강의 내용은 교회와 홈페이지, WordPress 이해, 테마설정, 고급 응용, 위젯, 게시물 관리, YouTube 영상등록, 홈페이지 구축 실제 등으로 모든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714)525-0088(Ext 102)



나사렛 남서부지방회 성탄가족잔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코로나19 이기고 아름다운 만남

나사렛 남서부지방회 성탄가족잔치 열어

나사렛 남서부 지방회(지방회장 이원규 목사)는 지난 5일 오후 6시 애너하임에 위치한 아름다운교회(담임 이봉하 목사)에서 남서부 지방회 성탄가족잔치를 열었다.

이원규 목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 가운데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며 "회원 목사님들 간의 사역에 대해 기도도 중보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갖고 성탄가족잔치를 갖게 됨을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 교단 남서부 지방회 회원들은 교제 및 식사시간을 가진

후 남서부 지방회 회장 이원규 목사(카리스교회 담임)의 인도로 예배가 진행됐다.

김인경 목사(축복교회 원로 목사)가 대표기도를, 아름다운교회 성도들이 '천사 찬송하기를' 특별 찬양한 후 이종환 목사(빛나리산교회 담임)가 '성탄의 기쁨'(마:1:23)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으며 이봉하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하토교회 전경, 임상근 목사의 사회로 게임 및 가족 장기자랑, 선물교환 등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편 나사렛 교단 남서부 지방회는 신년하례 예배를 2022년 1월 3일 오전 10시 찬양교회(담임 김성대 목사)에서 갖는다.

(정리: 박준호 기자)



라크마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이트가 한길교회에서 열렸다. 사진 우측에 사진은 이날 정형권을 받은 학생들과 관계자들

장학생 연주자 4명과 협연

라크마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이트

라크마(단장 최승호, 뮤직디렉터 윤임상 교수) 주최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이트 행사가 12일 오후 6시 한길교회(담임 박찬섭 목사)에서 열렸다.

올해로 8번째 갖게 되는 이번 음악회 전반기에는 올해 라크마 장학생으로 선정된 연주자들이 라크마 챔버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그동안 한인들이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범위를 넓혀 한인,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그리고 케네디안 출신 중에서 선발된 4명의 장학생이 무대에 올라 연주했다.

1st Winner 비올라 연주자 강 데이빗(USC), 피아니스트 Leonhard Hays(USC 박사과정), 2nd Place 바이올리니스트 에반 라펫(USC), 3등을 차지한 성악전공 크리스토퍼 방(USC)의 무대가 있었다. 이어 아프리

칸 아메리칸 커뮤니티와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함께 모여 공연했다.

이날 게스트로 BYTHAX 양상발(지휘 Dr. Diane White-Clayton)이 흥겨운 찬양을 했으며 한국 한국이 완곡 될 때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어 라크마의 공연으로 이어졌는데 베이스바리톤 페트릭 블랙웰이 한국가곡 '명태'를 불렀으며 테너 오위영과 함께 Au Fond du Temple Saint from opera Les pecheurs de perles를 불렀다. 이어 라크마 합창단이 우효원 작 '야! 대한민국'을 불렀다.

이날 피날레로 두 그룹이 함께 소리를 함께 '아리랑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했다.

(박준호 기자)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확정

LA 시의회 12월 7일 만장일치로 통과

LA 시의회가 지난 12월 7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LA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 최종안이 에릭 가세티 시장이 서명함으로써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의 숙원인 한인타운 시의회 선거구 단일화 내용을 담은 이번 선거구 재조정안은 10일부터 발효됐다.

LA시는 시의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LA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 최종안에 가세티 시장이 지난 7일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재조정된 선거구 지도는 향후 10년 간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다. 이번 선거구 재조정 지도에서 LA 한인 타운의 주요 구역들이 10지구로 포함됐다.

그동안 한인 타운은 10지구와 4지구는 물론 13지구, 1지구 등 4개 지역구로 쪼개져 있는데, 이번 재조정된 지도에서는 10지구 내에 단일화 된 모습을 보였다.

LA 한인 타운 선거구 단일화는 지난 10년 전에도 시도됐다. 당시 LA 한인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단합해 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촉구했지만 정치적인 입김이 물밑에서 작용하면

서 하나된 목소리가 아우성으로 치부됐고 결국 '무산'으로 끝난 바 있다.

이번에 실시된 선거구 재조정에도 일부 지역 단체들의 공청회에서 휘발과 LA시의회에서의 수정안 제시 등 몇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RTF(Redistricting Task Force)와 이사들의 참여 덕분에 지난 7일 LA시의회에서, 한인 타운 전체가 하나로 단일화 된 하이브리드 지도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13 대 0으로 통과했다. 이는 한인타운 시의원 지역구를 단일화 하기 위해 LA한인회, KYCC, KAC, 화랑청소년재단 등 한인 및 타 인종 단체가 연합해 RTF를 구성해 지난 수개월 동안 서명운동과 수심 차례의 공청회에 참여, 단일화를 강력히 주장해 온 결과다.

(정리: 박준호 기자)



에릭가세티 LA시장

“선교사 10명 중 7명은 코로나에도 선교지 지켜”

KWMA-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한선지포서 발표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가 8일 서울 동작구 KWMA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제 20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에서 '코로나19 시대 해외 선교사의 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교사 10명 중 7명은 코로나 19 상황에도 사역을 지켜온 조사결과가 나왔다. 코로나와 사역지 사정으로 잠시 선교지를 떠난 선교사들 중 절반 이상은 내년 이내에 선교지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세계선교협회(KWMA)는 제20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한선지포) 둘째 날인 8일 목회데이터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시대 해외 선교사의 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WMA와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위드코로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선교사 지원과 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해 코로나19가 해외 선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KWMA 강대홍 사무총장은 “미래 선교를 위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선교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한 선교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KWMA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의뢰로 지연컴리

서치가 지난달 17일부터 28일 까지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한국인 선교사 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결과 선교사의 75.7%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선교활동을 이어갔다. 코로나19 등으로 부득이하게 한국에 들어왔거나 제3국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들 중 52.0%는 내년 안에 선교지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선교사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현지 선교활동을 계속할 생각’(90.9%)이라고도 했다.

선교사 대부분은 선교지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사역’(92.2%)했다. ‘훈련 사역’(43.9%)과 ‘교회 개척·목회’(41.9%)가 뒤를 이었다.

코로나19가 긍정적 변화를 이끈 부분도 있었다. 53.6%가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눈길을 끈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사역에 가장 큰 변화가 올 것이라 예측한 부분이다. 선교사들은 ‘온라인 예배·온라인 콘텐츠 활성화’(52.6%)를 가장 많이 답했다. 미래 선교 사역 중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킹 사역’(39.4%)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도 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

표가 8일 서울 동작구 KWMA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제 20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에서 '코로나19 시대 해외 선교사의 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지난 6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교단 목회자 891명에게 조사한 결과와는 대조적이다. 당시 목회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사역의 가장 큰 변화로 ‘교회 출석 교인 수의 감소’(53.0%)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온라인 예배·온라인 콘텐츠 활성화’는 절반 수준(26.6%)에 그쳤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미래 선교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옴니채널 선교로 전환할 것”이라며 “선교사들은 이번 조사에서 미래 선교를 위해 성도들의 선교의식 확대와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의 안전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 선교사는 응답자 중 17.1%나 됐다. 코로나에 걸렸던 선교사들 중 72.2%는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다’고 했지만 ‘치료를 위한 약품’(26.5%)이나 ‘산소 발생기 등 의료 장비’(15.9%) 등은 구하기 어려웠다.

선교사들은 코로나19 감염시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치료를 위한 약품 지원’(6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독교한국루터회 등이 유아성찬을 시행하고 있다.

유아 성찬이 중단됐던 건 로마 가톨릭의 영향이다. 1214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화체설’이 공인된 게 유아성찬 중단의 계기다. 화체설은 성찬에 사용하는 성물을 주님의 실제 살과 피로 믿는 이혼으로 어린이들이 성찬식 중 이를 흘리는 걸 막기 위해 성찬 참여 나이를 성인으로 제한했다. 개신교는 ‘기념설’을 택하고 있어 이런 우려에서는 자유롭다.

김명실 영남신대 교수는 8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성찬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적으로 볼 수 있는 표지로서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게 맞다”면서 “유아세례 받기를 놓쳐 10여년 동안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은혜의 사각지대’를 살던 어린이들이 세례받을 기회까지 생기면서 모든 교인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게 아동세례 신설의 의미”라고 말했다.

유료 백신 안정성의 미확보를 들었다. 예자원은 현재까지 나타난 수많은 부작용 사례를 보더라도 백신의 부작용은 심각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한 백신 효과 역시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서울 확진자의 64%가 돌과 감염이라고 할 정도로 백신의 효과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예자원은 “정부가 또 다시 교회를 압박해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한다면 무능한 정부의 낙인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동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족공동체 개념을 제시하며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전문인 성도들이 함께 선도적으로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메디컬 처치 개념은 처음으로 선보인 것이었다. 전문 의료지식을 갖춘 교회 내 위원회가 방역 매뉴얼을 만들고 방역 당국과 의사소통하는 교회 내 새로운 사역을 제시한 것이다.

개신교인 10명 중 1명, 1년새 교회 떠났다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결과 발표

개신교인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최근 1년 사이에 교회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5명 중 1명은 개신교인이며 무종교인 비율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리서치는 8일 이 같은 결과가 담긴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최근 1년간 한국인의 종교 변화를 다룬 대목이다. 지난달 26-29일 1000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에서 ‘지난 1년 사이에 종교를 버렸다’고 답한 개신교인은 12%에 달했다. 개신교인 가운데 1%는 다른 종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는 불교를 믿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답한 비율도 개신교와 같은 12%였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대항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에서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다. 18-29세

무종교인 비율은 67%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10월 482명, 올해 11월 508명을 상대로 각각 진행한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올해 조사에서 종교가 있다고 답한 18-29세 응답자 가운데 “내 삶에서 종교 활동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30%로 전년보다 28%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종교를 가진 60세 이상 응답자의 경우 같은 질문에 동의한 비율이 65%로 지난해보다 7%포인트 증가했다.

개신교인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가장 높은 곳은 광주 전라 지역이었다. 이 지역 응답자의 25%가 개신교인이었다. 불교 신자 비율은 영남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거주자의 불교신자 비율은 각각 29%, 24%로 전국 평균(17%)을 웃돌았다.

개신교인의 종교활동 참여율이 다른 종교보다 크게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매주 종교

활동에 참여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개신교인 51%, 천주교 신자 25%였다(불교 신자의 경우엔 71%가 월 1회 미만, 혹은 아예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개신교인의 종교활동 참여율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6% 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이런 결과엔 코로나 탓에 대면예배가 힘들어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리서치는 2018년 1월부터 매달, 혹은 격주로 한국인의 종교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에는 이 기관에서 그동안 실시한 정기조사(총 23회)를 종합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개신교였다. 전체의 20%가 개신교인이었으며 불교와 천주교를 믿는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17%, 11%였다. 종교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50%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갤럽이 지난 5월 공개한 한국인 종교 현황 조사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개신교가 17%, 불교와 천주교가 각각 16%, 6%였다.

한교총, 1인 대표회장 체제로 가닥

20일 제5회 정기총회 속회, 정관개정안 재정부 다시 상정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지난 20일 정회원 제5회 정기총회를 오는 20일 속회한다.

한교총은 총회 속회에 앞서 13일 서울 종로구 한교총 사무실에서 상임회장단 회의를 진행하고 당시 내부 반발에 부딪쳐 미처 다루지 못한 정관 개정안을 재정부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정관 개정안은 공동대표회장 체제로 된 현 정관을 일부 개정해 공동 대표회장제는 유지하되 법적 대표성을 가진 단독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내용인 것

으로 알려졌다.

소감석 대표회장은 회의에 앞선 경과보고 자리에서 “지난 2일 열린 정기총회가 원만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정회원 것은 정말 유감이었다”며 “정회 이후 빠른 정상화를 이뤄 총회를 속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 “정관개정위원회의 정관 개정 사항을 묵과하고 가면 회장 체제로 된 현 정관을 일부 개정해 공동 대표회장제는 유지하되 법적 대표성을 가진 단독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내용인 것

소 대표회장은 “정회 후 정기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각 교단 대표자들 그리고 차기 한교총 대표총회장도도 긴밀히 대화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큰 원칙인 정관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해소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교총 대표회장단과 상임회장단은 이 같은 내용을 두고 열린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소 대표회장은 회의 후 1인 대표회장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인식한 듯 “1인 체제가 한교총 정관에 나온 정산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독단적 리더십으로 흐르지 않게 계속 협상하고 회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시설도 방역패스 적용되나” 촉각

한교총·문체부방역회의,교계 “적용엔 미접종자 예배안 마련을”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특단의 조치 발표를 예고했다. 이미 방역 당국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적용 대상에서 빠진 종교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한교총에도 정부 발표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종교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면 정부가 미접종자를 위한 예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서울 강남의 A교회 성도는 예배당 입구에서 성도 등록증을 인식기에 갖다 뒀다. 화면엔 성도의 이름과 직분, 지역은 물론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문구가 떴다. 정부가 지난 3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로 발표한 방역패스 대상에 교회 등 종교시설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교회는 정부보다 먼저 철저한 방역에 나섰다.

실제 일부 교회는 지난달 28일 오미كرون 등장 후 자체적으로 방역패스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대형교회들은 성도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 전산화 작업을 마쳤다. 정부가 종교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해도 교회 혼란은 크지 않을 거라 보는 이유다.

다만 교회들이 우려하는 건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정부가 교회 등 종교시설을 희생양 삼았다는 점이다. A교회 목사는 “일부 교회를 제외한 대다수 교회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누구보다 잘 따랐고 오히려 정부보다 강력한 방역 정책을 적용했다”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면 따르겠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교회에 책임을 돌리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종교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기도 고양 B교회 목사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40대 성도는 지병이 없었는데 1차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 의사 권유로 2차 접종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라며 “현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박탈할 권리는 누구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C교회 사역자는 “정부가 방역패스를 교회에 적용한다면 피해갈 수 없다. 만약 1-3부 예

배를 드린다면 1, 2부는 접종 완료자, 3부는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인원을 제한해 함께 드리는 방식도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정부는 종교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손영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계와 함께 종교시설의 방역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문체부 등 정부 관계자와 중단 실무자들은 방역 회의를 갖고 방역패스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교회를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방역패스를 적용해 미접종자의 예배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 방침을 전달했다.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면 미접종자를 위한 예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예기다. 한교총 관계자는 “예배 전 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반대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미접종자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예배 장소나 시간(부)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가 미접종자로 구성된 별도의 예배나 시설을 운용할 원칙과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장통합 아동세례 신설 헌법 공포

유아세례 나이 6세로, 입교허용도 13세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류영모 목사)가 ‘아동세례’를 신설하면서 유아세례와 입교 사이에 긴 ‘세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아동세례는 7-12세 어린이가 대상이다. 그동안 예장통합 소속 교회에서는 유아세례(만 2세 이하)를 받지 못한 어린이 교인의 경우 입교 전까지 세례를 받을 기회가 아예 없었다.

예장통합은 아동세례 신설과 함께 만 2세 이하 어린이에게 베푸던 유아세례 나이를 만 6세로 늘렸고 입교 나이는 13세로 2년 앞당겼다. 입교는 유아세례를 받은 교인이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한 뒤 세례를 확증하는 절차다.

예장통합은 지난 9월 열린 106회 정기총회 때 아동세례 신설과 관련한 헌법을 개정할 뒤 그동안 전국 69개 노회의 의견

을 물어 이를 지난달 29일 공포했다. 아동세례는 곧바로 시행됐다. 총회장 류영모 목사가 시무하는 경기도 한소망교회는 이에 따라 오는 25일 아동세례식을 연다.

한편 예장통합은 2019년 교단 104회 총회 때 유아성찬 규정도 통과시켰다. 유아성찬은 입교 여부와 관계없이 세례를 받은 모든 나이의 교인에게 성찬 참여의 기회를 주는 걸 말한다. 원칙적으로 유아세례를 받은 영아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유아 성찬은 보편적 추세다. 이미 미국장로교회와 스코틀랜드교회는 각각 1983년과 1992년, 성찬을 유아세례를 포함한 모든 세례교인으로 확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기독교장로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대한성공회,

“백신 미접종자 교회 오지 말라는 건 개인 자유 철저히 짓밟는 것”

예자원 긴급기자회견, 정부종교시설백신패스도입확대 검토 강력 비판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원)가 정부의 백신패스 종교시설 도입 확대 검토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예자원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종교시설에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를 위반하는 권한 남용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백신 맞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건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짓밟는 것”이라며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개인 신체 특성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의사 권유로 2차 접종을 무기한 연기한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을 차별하며 대우하라는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예자원은 백신패스는 중단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 이

새에덴교회 ‘메디컬 처치’ 첫 도입

예배의 존엄성 깨우치며 다양한 온라인 소통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교회에는 고난을 극복하는 자체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대표적인 교회가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소감석 목사)다.

새에덴교회는 코로나 시기, 교계에서 가장 먼저 강단 뒤편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줌(ZOOM)으로 성도들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메디컬 처치와 플랫폼 처치, 영적

부터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경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이영훈 목사는 “이제 게바 부족은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다”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35개 언어를 사용하는 미얀마 소수 부족을 위한 대한성서공회의 성경 번역 프로젝트가 더욱 확대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얀마 게바어·테딤어 성경제작 후원

여의도순복음교회, 대한성서공회 번역 프로젝트 일환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교회에서 대한성서공회(권의현 사장)와 함께 미얀마 게바어(Geba)어 신약성경 3000부와 테딤어(Tedim)어 성경 2500부 기증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게바어 신약성경의 번역과 제작, 테딤어 성경의 제작을 후원했다. 게바어 신약성경은 2015년 번역을 시작해 2019년 번역이 완료

됐다.

이번에 제작된 성경은 미얀마 동부 산주와 케인주 북부 지역에 사는 게바 부족과 미얀마 서쪽 친 지역 부족에 사는 테딤 부족에게 전달돼 각 부족의 신앙 생활을 돕고 지역 복음화를 이끄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대한성서공회에 따르면 게바 부족과 테딤 부족의 인구는 각각 4만여 명 정도다. 테딤 부족은 20세기 초 복음을 접했으며, 30여년 전

선교 펴기

헝가리

기도와 주님사랑으로, 또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 선교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소식드립니다~

원"에서 살게 되면서, 이렇게 개인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있으나 다행입니다. 나는 일론 사진 파일과 폐북에 남겼던 글과 사진에서 16장을 찾아서 보냈습니다.

한데 갈 수 있게 해서 교회도 계속 나올 수 있었지요.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허용되지 않던 기간에 아이들은 영양을 골고루 취해 모두 건강하게 부쩍 컸습니다.

서 학교가기 싫다며 울던 도리는 이제 옮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도리! 넌 누구야? 누가 너를 창조하셨어? 누가 널 사랑해?"



도리와 도리가족/톨렌드와 톨렌드 가족 원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급히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없었습니다.

녀임을 늘 명심시켰던 질문을 또 할 것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15강 / 번성과 학대, 탄식 그리고 모세(출1장)(하)

탄식

그동안 비록 종살이 같이 타지에서 외국인으로 살았어도 애굽의 풍요에 묻혀 '탄식'이 없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누이인 미리암이 지켜보도록 합니다(출2:3,4). 이때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는 물심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한 '방주'와 이후 출애굽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임하실 성막 안 '법궤'와 같은 것입니다.

자라면서 자기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가졌을 것이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죄인의 삶'을 사는 모세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이면 '실력'과 '능력' 그리고 '힘'과 '재능'을 가진 모세가 생각한 대로 준비된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주시는 것을 형제들이 깨달으리라'(행7:25)고 생각했지만 아직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이 '나그네' 역시 '갈대상자'와 '모세의 이름'과 함께 앞으로 모세의 사명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자신이 40년간 죽어질 이 광야가 바로 향후 하나님의 백성과 걸어가야 할 그 길인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모세, 사명의 부르심 받음

'부르심 이전'의 모세

모세 역시도 앞선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신앙의 여정을 겪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모세 역시도 믿음이 요동치기도 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성경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신34:10)로 말합니다.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출2:5).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출2:6) 이때 등장한 모세의 누이의 소개로 모세는 생모의 손에서 안전하게 자랍니다(출2:7-9). 그리고 자라매 바로 왕의 딸에게 보내져(출2:10) 애굽의 왕자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에 능하게 됩니다(행7:22). 바로 왕의 딸은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었다'하여 '모세'로 짓는데 '갈대상자'와 함께 모세의 이름의 뜻은 앞으로 모세가 그 죄악의 물과 같은 애굽에서(출12:41) 그리고 죽음을 물인 홍해에서(출14장)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게 될 것을 또한 암시합니다.

듣고 알았을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죽이게 됩니다(출2:11,12). 그리고 다음 날은 두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중재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보고 바로 왕을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출2:13-15).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남은 생애를 자신만을 위해 풍요롭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up and down의 단계이지만 말입니다.

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실 방법은 이렇게 한두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바벨론과 같은 애굽 땅에서 한꺼번에 불러내시는 더 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시 40년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더 준비를 합니다. 앞선 40년이 '힘과 능력'을 갖춘 '재주'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이제 40년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지는 '덕'을 갖추는 기간인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40의 월기왕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 죽기 전에 모세에게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갈대 상자

모세는 레위인으로 태어났습니다(출2:2). 이미 모세 이전에 그의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고 모세는 아론과 3살 차이였으나(출7:7) 미리암과는 꽤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출2:7). 모세가 태어났을 때 엄마인 요게벳(출6:20)이 보기에 다른 자녀들,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그때가 바로 왕이 사나아이는 다 죽이고 나일 강에 던지라 했던 때임에도 석 달을 숨겼습니다(출2:2). 그리고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부르심' 받는 모세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이후 80살 때에 받은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라기보다는 '사명을 위한 부르심'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세는 생모의 손에

아직은 하나님의 '때'도 '방법'도 아닙니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성탄의 묵상1-예수(마1:21)찬122장

2000여년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 속에서 묵상합니다. 그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첫째,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이 지어준 그 이름이 구원이란 뜻입니다.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오신 구주입니다. 둘째, 대속자로 오셨습니다. 그 구원은 대속물을 필요로 했기에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자

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셋째, 풍성한 죄사함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생긴 모든 죄책과 형벌을 자신의 죽음으로 면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습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마9:5). 우리 가정에 이 놀라운 구원을 확신하고(행16:31) 이웃에게 힘써 증거하십시오.

화 성탄의 묵상2-임마누엘(마1:23)찬120장

분문은 마태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 예수가 임마누엘되심을 보여줍니다. 그 임마누엘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임마누엘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말합니다. 믿음과 회개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집니다. 이것이 구원의 실상으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안에 있다는 뜻입니다(요15:5). 둘째, 그 연합의 효력은 내세뿐 아니라 지금 이 땅

에서 누리도록 돼있습니다. 신자의 생활은 부활의 주님이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부활하신 예수)는 영(성령)이시다(고후3:18)"라고 함으로 임마누엘의 효력을 강조했다. 셋째, 모든 사역 속에 그는 임마누엘로 나타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구주를 모든 피조물에게 증거하십시오(막16:15).

수 성탄의 묵상3-동정녀 탄생(눅1:34-35)찬109장

마리아에게 일어난 예수탄생의 계시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시작된 구원임을 강조합니다. 창3:15에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구원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십니다(렐1:6). 둘째, 전능자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음으로 이루셨습니다. 마리아의 경건과 믿음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은

혜의 그릇입니다. 동정녀 탄생에 관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생겨납니다. 셋째, 그것은 구속을 이루는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교회의 구속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이 그 탄생으로 시작됐음을 전했습니다(딤후전3:16). 인본주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어두운 세대에 동정녀 탄생의 신앙을 증거하십시오.

목 성탄의 묵상4-말야들의 탄생(눅2:7)찬114장

누가는 왜 강보에 싸인 아기 예수를 "첫 아들"로 증거했습니까? 첫째, 첫 아담을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첫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 아들이 모든 저주를 자신의 죽음으로 종식시키고 그의 부활로 새 백성을 만드심을 암시합니다(롬5:12-14). 둘째, 구약에서 말하는 초태생의 성취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의 초태생들이 죽게 될 때 문설주에

달린 어린양의 피 때문에 살아난 것처럼 그는 구속을 단번에 이루신 완전한 대속물이기 때문에 첫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셋째, 완성된 구속의 본이기 때문입니다. 롬8:29,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될 자기백성이 많아 할 구속의 본이기 때문에 그는 첫 아들이십니다. 첫 아들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갑니다.

금 성탄의 묵상5-의와 평화의 입맞춤(눅2:8-12)찬115장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이 만난 성탄의 계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가브리엘의 방문을 통해 탄생의 장소와 목적을 전해 듣고 달려가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시아가 만민의 구주임을 확신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천군천사의 찬양을 통해 메시시아가 이루실 구속의 영광을 그림으로 보았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감은 그의 죽음이 그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땅에는 평화와 임함은 그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두 장면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신자는 은혜가운데 살아갑니다. 목자를 통해 보인 구속의 영광과 평화로 채워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땅에 누릴 천당생활입니다.

토 성탄의 묵상6-참 예배(마2:1-2)찬116장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왜 아기 예수를 찾아왔습니까? 첫째, 그들은 일반은총을 연구하다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 "만민을 다스릴 야곱의 별"을 만나기 원했습니다(민24:17). 고난의 긴 여정을 통해 베들레헴으로 가서(미5:2)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둘째,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할 곧, 참 예배자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앞뒤로 경배함으로 참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령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 모든 시험 속에서 기이한 보호를 받았었습니다. 셋째, 그의 예배는 모두 드리는 헌신으로 표현했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림은 참 예배의 증거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구원받은 교회의 본보기가 됩니다. 참 예배의 그림자입니다. 참 예배자가 됨이 우리 생애의 궁극적 목적이어야 합니다.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23)

언약의 비석: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확고까지 걸어가는 인생

이제 다니엘 12장을 반주하면서 1년간 진행 되었던 본 시리즈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다니엘 12장은 세상 종말에 출현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상과 환란을 통과한 교회와 성도의 궁극적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마무리 하는 장이다. 다니엘 12장에 기록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기억하자(단12:1-3). 큰 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이다. 지혜 있는 자는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자는 영원토록 반짝일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이다.

지혜 있는 자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식견이 있는 자. 인간 문명의 한시성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아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다니엘처럼 생명을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며, 영생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혜자는 바로 현세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각하고 미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굳은 소망이 있으며 선교에 대한 확고한 실천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인생을 보낸다면 종말의 시간은 두려움이 아니라 최고의 환희의 날이 될 것이다

마지막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된다(단12:10). 정결케 살며 지혜 있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자. 날마다 신실한 믿음을 베풀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깨어서 연단 받고 하나님의

에서 Hundert 선생님(Kevin Kline)은 학생들에게 첫 시간에 이렇게 묻는다. 너희들의 후손이 너희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바라는가? 역사는 너희 각자에게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이희갑 목사

(아주사범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Shutruk-Nakhunte 라는 Elam왕의 사례를 든다. 비록 그 왕이 당시에 영토를 확장시키고 대단한 권력을 구축했지만 현재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왜 그런가? 역사에 공헌하지 못하고 후세를 위한 업적을 쌓지 못하면 역사는 그 사람을 기억해주지 않는 것이다.

다니엘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감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다. 내가 죽는다면 나의 묘 비석에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는가? 역사는 나중에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나의 후손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발달 심리학자인 Erik Erikson은 인생의 발달을 8개의 단계로 나누면서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말기(65세 이상 죽음의 시기까지)를 통합(Integrity)과 절망(despair)의 시기라고 불렀다. 이 시기에 사람은 전체적으로 각자가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치를 생각하고

인간문명의 한시성, 인간 탐욕, 하나님나라의 영원성 알게 해 세상은 악이 존재하고 영적전쟁이 있으며 믿는 자의 승리보장

말씀을 더욱 깨달아가는 사람들과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 하고 연단되어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천국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영적인 비밀을 날마다 더해가는 사람들과 성령의 인도에 무관심하고 오직 세상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나는 이 두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다니엘 12:3을 귀 기울여보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마지막 때가 오기까지 꾸준한 믿음으로 주어진 임무에 충성하라라는 말이다.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일을 쉬 없이 계속 해가라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 "내가 평안히 쉬리라! 그리고 끝날 때에는 네 영을 누릴 것이니라." 읊을 기억하는가? 그는 고난을 당한 뒤에 두 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평안히 살다가 죽었다(욥42:17). 신앙생활에 있어서 갖게 되는 최후의 확신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기에 역경과 환란이 지금 우리에게 온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라.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요16:33).

2002년에 개봉된 영화 The emperor's club

이를 궁극적으로 수용하고 만족하게 평가할 경우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런 관점은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수용하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자기 삶을 돌아보며 불만과 회한의 고통을 느끼고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때 이를 절망이라고 말한다. 잘못 살아온 것 같아서 인생 늘그막에 자신의 삶에 회의를 느끼고 후회하는 삶은 곧 절망에 이른다. 이렇다. 문제는 인생 노년에 자기의 삶에 대해 통합의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제 글을 마무리하자. 다니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역사관으로 무장되어야 함을 가르쳐 준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미래의 일들을 꿈으로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특정한 나라, 권력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지 않았다. 그냥 짐승의 모양으로(뿔/염소/수양/동물 등), 또 상징적으로(남방왕국 북방왕 등) 보여주실 뿐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그는 상관없었다. 우리는 나중에 그렇게 역사가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의 왕국, 왕의 이름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원칙을 배우게 되었다. (15면으로 계속)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h4>뉴욕셋새마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www.nygetsemang.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일 기도회: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57-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4>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일 기도회: 오후 08:45 새벽기도회: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265-2584, www.kf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새벽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www.p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성희 주일예배: 오전 11:00 다문화특별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일 기도회: 구역모임</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성경연구강좌: 오후 1:30 주일학교강좌: 오후 12:30 주일학교강좌: 오후 1:30 수요찬양모임: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4>베이사이드 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목회특별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 229-26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p>			<h4>사랑의동산교회</h4> <p>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p> <p>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p>			<h4>어린양 개역 교회</h4> <p>담임목사: 유승례 EM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p> <p>Tel. (845)848-2013</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예배 7:30분 주일 2부 예배 1:50분 주일 3부 예배 1:50분 찬양예배: 오후 3:40(토)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금요공포기도회: 말씀, 찬양, 기도회 금요일 기도회: 오후 7:30 금요찬양 기도회: 네달(화) 오후 7:30</p> <p>Tel. (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럼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61 Camocui S, Paulo Cep 01528-010</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3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파기도회: 아침 7:40 유, 중, 초,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선교사: 임함근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교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20)



가. 장애인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밀알동산교회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공동체이다. 그 교회를 통하여 개인과 사회를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반 공동체적인 세력의 극심한 공격에 맞서서 사회는 그 구조를 단단히 붙잡아 주는 여러 기관들을 만들어 냈다. 즉 정부, 사업체, 학교, 자본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복지 그리고 수십 가지의 이데올로기 등등이 자신들을 통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세기말인 현재의 시점에서 문제들은 더 복잡해지고 공동체 이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멀어지고 있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야말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여긴다. 우리가 믿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므로 또한 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

밀알동산교회는 주일에 다 음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

△주일 오전 10시-10시45분 장애학생을 위한 봉사자 학생 성경 공부가 있다. 봉사자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 봉사자는 15명 정도이다. 또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는 성인들의 중보기도 시간이 있다.

△주일 오전 10시45분-11시 장애인과 봉사자들이 함께 찬양을 한다.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성인 장애인 예배 그리고 장애 학생예배가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드려진다.

△주일 오후 12시20분-1시 장애인들과 봉사자들 50여명이 함께 식사하며 교제한다.

△주일 오후 1시-2시 성인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은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장애학생들과 학생봉사자들은 게임, 댄스, 찬양, 등등의 시간을 매주 바꾸어가면서 진행한다.

이 주일예배와 사역을 통하여 장애인 부모들에게 예

의 시간을 드리고 장애학생들도 예배를 드리게 할 뿐 아니라 봉사자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형제 자매되는 은혜를 누린다. 다른 교회 다니는 장애인 부모는 장애학생을 밀알동산교회에 맡기고 본인의 교회에 가기도 하고 교회 장애인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는 밀알동산교회에 보내기도 한다.



밀알 꿈터 교육실

이 될 것이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지능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지능 장애인들은 육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단순 반복된 일이라 불평하지 않고 잘한다. 일반 사람들은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이면 지루해하며

다. 장애인 데이케어센터 운영

그룹홈은 숙식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데이케어는 낮 동안에 활동하는 곳이다. 그 곳에서도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장애인 부모들은 그 자녀들 때문에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밀알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 센터는 장애인 부모에게 맞는 일자리를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 강사, 음악 강사, 미술 강사, 레크리에이션 강사 등등이다.

라. 장애인 선교를 위한 학교 운영

이 학교는 단순히 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도 같이 하는 학교이다. 일반 학생들은 지식만 배울 뿐 아니라 생활 가운데 장애인을 도우면서 섬기는 리더십을 배우게 된다. 이들은 또한 장애인의 친구가 되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안목을 갖게 된다. 장애인도 일반인들은 친구로 사귀며 건강한 사회인으로써

그룹홈, 데이케어센터, 학교 등 운영 계획 장애인과 일반인 함께 움직이는 기관 필요

밀알동산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난한 자와 부자,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현장을 맞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헌금은 평균 한달에 5000불정도 되는데 방갈라데시 장애인 사역을 후원할 뿐 아니라 뉴저지밀알선교단 재정적 적자를 도와준다. 앞장에서 사역의 개선점으로 지적했던 뉴저지 밀알선교단의 약점을 밀알동산교회는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증거하고 있다.

나. 지능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 이 함께하는 그룹홈

뉴저지에서 장애인들이 그룹홈에 들어가려면 수년 동안을 기다려야 한다. 사실 그룹홈에 들어가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언어와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즐겁지가 않다. 그래서 뉴저지 밀알은 그룹홈을 계획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신앙과 예배 중심의 홈

불평하는 데 지능장애인들은 그렇지 않고 친절하며 온순하다. 팔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인성 장애로 말미암아 지체 장애가 된 사람들은 지능 장애인들 손자손녀처럼 예배할 것이고 지능장애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것이다.

그 그룹홈은 일반 동네와 멀리 떨어진 산속이 아니라 교통이 가장 편한 동네 중심에 자리 잡아 그 부모들도 수시로 찾아올 수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쉽게 올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서로 어울려서 살도록 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장애인에게도 좋을 뿐 아니라 이 사회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헨리 나우웬이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일반 사람들을 치유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는 매일 예배가 드려질 것이며 주말이면 음악회와 연극 등 문화적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삶을 누리게 한다.

이 학교는 일반학문 뿐 아니라 성경을 필수과목으로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지식에 밝은 사람들이 되게 한다. 이 학교는 장애인 선교에 헌신할 인재들을 키우는 학교이다.

뉴욕 뉴저지 지역에는 세계 각 민족의 사람들이 사는 작은 지구촌이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인 선교에 대한 지식을 주고 훈련을 시켜서 각기 자신의 민족과 나라에게 파송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사람을 선택하여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파송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또한 각 나라에서 장애인 인재를 발굴하여 이곳에 유학하게 하여 영어와 컴퓨터, 성경에 능하고 일반 학문도 학위를 따게 하여 그 나라로 파송하면 제 2.3의 헬렌 켈러가 될 것이다. 이 학교에서는 미술, 음악, 댄스 등 학과도 설치되어 장애인들의 예능적 재능을 키워줄 것이다.

miju92@gmail.com

기도/칼럼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캐럴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캐럴(carol)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캐럴은 ‘기쁨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야외에서 피리를 불고 춤추며 부르는 노래를 의미했습니다. 서민들이 일상에서 흥겹게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이것이 발전되어 크리스마스 캐럴이 되었습니다. 캐럴은 프랑스에서는 ‘노엘’, 독일에서는 ‘바이나흐트리트’라고 말합니다.

캐럴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는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영국에서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캐럴을 부르면서 예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성탄절 새벽송도 캐럴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캐럴 곡으로는 “저 들 밖에 한밤중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캐럴은 상업화와 맞물려 많이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예수 탄생과 무관한 노래가 많습니다. 예수 대신에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트리, 소나무, 하얀 눈, 종소리, 루돌프 사슴코, 징글벨, 실버벨, 굴뚝, 카드, 선물 등, 예수 이외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들도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보다 산타클로스의 선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학교에서 한 아이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우리가 선물을 받느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어린이들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 헛갈려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Christ)와 예배(Mas)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Merry Christmas는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자는 것입니다. 구원자, 해방자로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앞드려 경배하는 곳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워 크리스마스를 Happy Holiday로 바꾸려고 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캐럴은 부르면서 크리스마스를 엮어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분위기 따라 즐겁게 노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전통적인 캐럴을 많이 부르며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2:14).

bible66@gmail.com

다니엘영성프로젝트

〈14면에서 계속〉

그것은 인간 문명의 한시성, 인간들의 탐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이다. 거기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힘을 발견한다.

다니엘서를 통해 배우게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은 세상은 악이 존재하고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다. 악이 우리에게 닥칠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하게 한다. 악과 연합하는 사람(안티오킨, 유대 종교지도자들)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단11:33). 그러나 압박과 고난은 끝이 있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렇다.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원천이 된다. 기독교는 처음보다 나중에 아름답고 더 절되는 삶을 제시하고 있다. 처음에는 실패해도 두 번째 기회가 제공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하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과거의 죄가 다 도말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는 삶을 제공받았음을 기뻐하자. 비록 처음에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에 이르는 삶을 만족하자.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자. 다니엘처럼. hlee0414@gmail.com (끝)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성탄절 축하 광고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용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917)968-1024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

Tel. (702)749-9929
Fax. (702)478-7224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Tel. (917)862-0523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양곡교회
연합당회장: 지용수
담임목사: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213)380-9377
Tel.(213)380-9079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중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빛과소금의교회
담임목사: 장요셉

1864 Precinct Line Rd,
Hurst, TX 76054

Tel. (817)427-1020
Fax.(817)427-0110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4562 211th St,
Bayside, NY 11361

(718) 229-0858
www.nybaysidechurch.com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www.sunghwachurch.org

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 김순관 목사

Tel.(808)542-2922
www.ikccah.org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Cell.(213)745-9191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el.(323)-737-3009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
(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el. (714)646-9259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213)749-6700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310)325-402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Tel.(253)536-6675
www.facomacrc.com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3416 W. 1st St,
LA., CA 90004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